



인천의 새로운 FM방송 탄생

최고의 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느낌 90.7 우리함께 SUNNY-FM



굿모닝 인천 (월요일~금요일 매일 아침 7시~9시)
인천의 정치, 경제, 문화와 다양한 생활정보

글로벌 인천 (금요일 아침 8시30분~9시)
인천지역현안에 대한 명사들의 통쾌한 토론

인천포럼중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8시30분)
다양한 소재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유명 강연자들의 특강 중계

SK 와이번스 프로야구 중계 (매주 토·일요일)
인천시민들을 위해 우리지역 연고팀인
SK와이번스 주말 전 경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중계

박근혜의 뮤직박스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
톡톡 튀는 그녀와의 유쾌 상쾌 데이트!

DJ채리의 SUNNY MUSIC SHOW (매일 오후 1시~2시)
강력한 파워 리믹스가
오후의 나른함을 한방에 날려드립니다

김광한 팝스다이얼 (매일 오후 2시~4시)
음악 DJ역사의 산증인과 함께

장용과 세리의 신나는 라디오 인천 (매일 오후 6시~8시)
지루한 퇴근길을 웃음과 음악으로 채워드립니다

오세준의 P.S. I LOVE U (매일 자정~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유쾌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http://www.sunnyfm.co.kr>
tel : 032-830-1000

Good Morning INCHEON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 | 7





플라이 인천

우리시의 도시브랜드가

‘Fly Incheon’으로 정해졌다.

‘F·L·Y Incheon’은 ‘Future(미래로) Leap(도약하는) Young(젊은) Incheon(인천)’을

표현한 것으로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있는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추세로

세계 주요도시는 저마다 독창적인 도시 슬로건을 만들어 브랜드화 하고 있다.

현재 뉴욕은 ‘아이러브 뉴욕’ 도쿄는 ‘에스! 도쿄’ 그리고

서울은 ‘하이 서울’을 사용하고 있다.

‘플라이 인천’은 국가브랜드인 ‘다이나믹 코리아’와 잘 부합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7 (통권 151호)



표지설명 _ 무의도 여름바다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7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窓 2006 | 플라이 인천

04 굿모닝 리포트 | Restart! 신발끈 다시 매고 앞서 나간다

08 2006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Rock & 樂 송도벌을 달군다

12 이달의 공연 | 극단마임 〈일상밴드〉 외

14 11회 여성주간 및 제3회 남녀평등의 날 기념 문화행사

15 2006 인천 비타민 연극축제

16 포커스 | UN APCICT 개소

18 김치 찰칵

43 굿인천 굿뉴스 | 인천모습, 미 전역에 방송 외

46 경제자유구역 뉴스 | 인천대교, 교각상판 공사 시작 외

47 시의회 소식 |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연미복을 벗는 온화한 클라리넷 아저씨, 한학 악단장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생일’

55 Info Box | 국선도 단전호흡 무료회원 모집 외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이보게, 장 받으시게나



20 삼... 안식의 계절이 왔다

22 백령도 | 멀어서 더 그리운 섬

24 대청도 · 소청도 | 바람과 파도가 만든 모래섬

26 연평도 | 태고의 신비를 내뿜는 섬

28 덕적도 | ‘낭만’이 철썩이는 섬

30 자월도 · 승봉도 · 이작도 | 파도 끝자락에 걸친 섬

32 영흥도 · 선재도 | 큰 노을에 젖는 섬

34 장봉도 · 신도 · 시도 · 모도 | 하늘과 갯벌이 맞닿은 섬

36 용유도 · 무의도 | 한달음에 달는 앞마당 섬

38 강화도 | 천년 바람 타고 역사기행하는 섬

42 섬으로 가는 배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굿모닝 리포트 | 민선 4기 출범

Restart!

신발끈 다시 매고 앞서 나간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동북아 허브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우리시. 지난 4년 동안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도시건설 추진을 비롯해 구도심개발 등 많은 과제들을 진행해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이제 안상수 시장의 재선으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시의 모습을 계속 그려갈 수 있게 됐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5월31일, 265만 인천 시민은 숨을 죽이며 개표방송에 촉각을 세워 당선결과를 지켜봤다. 그동안 우리시가 진행해온 사업들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과연 누가 시정(市政)을 잘 펼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인지 그리고 내가 찍은 후보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을 것이다. 개표결과는 안상수 후보가 526,931표를 얻어 61.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안 시장은 충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때 인천으로 전학 와 인천서림초등학교와 인천중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인천에서 살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트로이주립대학 경영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다. 70년대 말 제세산업의 초창기 멤버로 활약했으며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를 맡았다. 동양증권(주) 부사장, 동양선물(주) 미국 시카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주)데이콤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제15대 국회의원과 민선 3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선 4대 인천광역시장 재임에 성공했다. 안 시장은 7월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민선 4기 업무에 들어간다.



차 한 잔 | 안상수 시장

Q. 선거 후의 소감은?

먼저 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인천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에 대한 인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난 4년보다 더 열심히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 시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통합과 조화의 시대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시정 4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입니다. 인천을 더욱 발전시켜달라는 시민들의 뜻을 더욱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공직에 임하는 자세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인천시 공무원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온 사업들과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공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겠습니다.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편하게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Q.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기존도심의 재개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이 약속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천시민 뛰어서는 안됩니다. 인천시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삶의 질을 반드시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 시장의 선거공약은 특별할 게 없을지도 모른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국제도시 건설, 기존 도심의 재개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환경도시 건설, 시민 자긍심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여건 조성 등의 공약은 지난 임기동안 안 시장이 추진해 온 사업일 뿐이다. 안 시장은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을 바탕으로 한 안 시장의 시정2기 밑그림 그리기는 이미 시작됐고 10가지 굵직한 과제로 집약된다.

국제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151층 쌍둥이 빌딩인 (가칭)인천타워와 유엔센터를 건립한다. 국제 학교와 외국인 병원을 건립하고 운북레저 단지를 건설한다. IT·BT 등 최첨단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공항, 항만과 연계해 인천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센터를 유치해 동아시아 지식산업의 인큐베이터로 만든다.



2014 아시안게임 유치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의 브랜드를 세계화한다. 아시안게임 유치시 건설, 제조, 관광, 금융 등에 미치는 6조 3,800억원의 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통해 인천경제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체육, 레저,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



구도심 재창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간선화 구간 (서인천C~인천항 시점)을 일반 도로화하여 시민참여형 도로를 만든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건설, 인천대 이전부지 도화 뉴타운 건설, 송의경기장 리모델링 및 도원 뉴타운 건설, 제물포 역세권 뉴타운 사업, 인천역·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등 기존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인천을 건설한다.



교육도시 인천

초·중등 교육환경 특히 외국어 교육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인천대학교의 국립화와 송도 경제자유구역 이전을 통해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연세대학교 캠퍼스 건립과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한다. 특목고 신설 및 외국어마을 확대지원, 원어민 교사 전면 배치 등을 통하여 교육 제일의 도시 인천을 만든다. 또 학교공원화, 잔디구장, 지하주차장, 체육관 등을 건립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문화·생활·공동체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건설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시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년 OJT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인천형 뉴딜정책'을 통한 2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신활력사업, 농어촌 경제활력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펼친다.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습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무거운 보육비로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읍·면·동별 1개소씩, 140개소로 확충한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가정상담사인 홈케어제를 실시한다. 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

민선3기 동안 3백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따라 이미 450만 그루를 심어 목표가 달성됐다. 앞으로 인천 시민 한 사람당 1평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300만평의 공원을 추가 조성한다. 친환경 Clean-City조성,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도시 건설

시민을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광역철도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도시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특히 교통정체 및 주차난을 적극 해소한다.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스포츠 메카 건설

인천&아츠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화랜드마크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공연공간을 확대한다.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축제를 강화하고 송암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국제적 수준의 관광·레저시설과 월미관광특구 등 도심 친수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비롯해 국제 스포츠를 유치하는 등 국제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인천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시민이 중심이 되는 One-Stop 행정서비스를 위해 종합행정타워를 건설하고 도시통합 브랜드로서 대표 이미지를 구축한다. '2009 인천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해 인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발전을 이끈다. 축구와 야구 등 지역연고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민통합을 지향한다.



역대 시장 누가 있었나?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

〈광역시 민선시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민선 4대	안상수	2006. 7. 1 ~
민선 3대	안상수	2002. 7. 1 ~ 2006. 6. 30
민선 2대	최기선	1998. 7. 1 ~ 2002. 6. 30
민선 1대	최기선	1995. 7. 1 ~ 1998. 6. 30

〈직할·광역시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8대	이영래	1994. 9. 24 ~ 1995. 6. 30
7대	최기선	1993. 3. 4 ~ 1994. 9. 23
6대	박종우	1992. 4. 21 ~ 1993. 3. 3
5대	심재홍	1989. 7. 21 ~ 1992. 4. 20
4대	이재창	1987. 5. 30 ~ 1989. 7. 20
3대	박배근	1986. 1. 9 ~ 1987. 5. 29
2대	안찬희	1985. 2. 28 ~ 1986. 1. 8
1대	김찬희	1981. 7. 1 ~ 1985. 2. 27

일반시장(직할·광역시 이전)

대수	성명	재임기간
21대	전영춘	1980. 5 ~ 1981. 6
20대	원병의	1978. 2 ~ 1980. 5
19대	김태호	1976. 7 ~ 1978. 2
18대	김재연	1975. 11 ~ 1976. 7
17대	정규남	1973. 7 ~ 1975. 11
16대	홍승순	1971. 8 ~ 1973. 7
15대	유병택	1969. 5 ~ 1971. 7
14대	김해두	1966. 9 ~ 1969. 5
13대	신충선	1966. 7 ~ 1966. 9
12대	윤갑로	1965. 2 ~ 1966. 7
11대	장수영	1963. 6 ~ 1965. 1
10대	류승원	1961. 5 ~ 1963. 2
9대	김진두	1960. 12 ~ 1961. 5
8대	오원근	1960. 7 ~ 1960. 11
7대	김정렬	1958. 2 ~ 1960. 6
6대	김정렬	1954. 2 ~ 1958. 1
5대	표양문	1952. 5 ~ 1954. 2
4대	박학전	1951. 10 ~ 1952. 5
3대	지중세	1950. 5 ~ 1951. 9
2대	표양문	1947. 2 ~ 1950. 4
1대	임홍재	1945. 9 ~ 1947. 1

Rock & 樂 송도벌을 달군다

일정 _ 7월 28일(금)~31일(월)

장소 _ 송도유원지 인근 3천 m태우자동차 부지

티켓 _ 1일권 8만원, 2일권 12만원, 3일권 15만원, 캠핑권 1인당 5천원

예매 _ 펜타포트락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pentaportrock.com>),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kr>)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0), (주)YESCOM(02-783-0114)

최고의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는 밴드 스트로크스(The Strokes), 다이내믹한 스테이지를 전개하는 싸이(Psy), 넥스트의 신해철... 굳이 락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라커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 한여름의 폭염을 더 뜨거운 열정의 무대로 날려버릴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송도 앞바다에서 열린다.

우리시가 기획한 '펜타포트(PENTAPORT)락페스티벌'이란 우리시가 일찍이 공항, 항만, 정보(Airport, Seaport, Teleport)의 트라이포트에 비즈니스, 레저분야(Business-port, Leisure-port)를 추가해 다섯 가지 포트를 결합시킨 국제도시 전략에서 온 이름이라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72시간 릴레이 공연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출연진만 해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 10개팀, 국내 25개팀 등 40여개 팀에 달한다. 28일(금)의 헤드라이너는 '스트로크스(The Strokes)'로 결정됐다. 이들을 비롯해 중성적인 매력의 보컬이 인상적인 영국밴드 '플라시보(Placebo)'와 힙합계의 새 바람 미국의 '블랙아이드피스(Black Eyed Peas)',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드래곤애쉬(Dragon Ash)', 그리고 고풍스럽고 미니멀한 음악을 들려주는 '프란즈 퍼디난드(Franz Ferdinand)'와 뉴욕 신을 대표하는 '예예예스(Yeah Yeah Yeah's)'가 무대를 달군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다이내믹한 스테이지 전개로 유명한 '싸이(Psy)'를 비롯해 한국 락의 저변을 확대한 '넥스트(N.E.X.T.)', 한국 헤비 메탈계의 전설 '시나위', 뉴 메탈 밴드 '피아', 헤비뮤직 씬을 이끄는 '크래쉬' 등이 인천 무대를 밟는다. 메인, 서브 무대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돼 밤 11시쯤 공연이 끝나면 '레이브 파티(Rave Party)'가 새벽 3~4시까지 이어진다. 분위기만 무르익는다면 밤샘 공연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먹고 자며 록을 즐긴다

우리시에서 락페스티벌을 여는 게 올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9년 '트라이포트락페스티벌'을 열었지만 갑자기 닥쳐온 태풍으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 행사장은 메인무대인 빅탑스테이지(Big Top Stage)를 비롯해 새벽까지 자유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는 펜타포트 스테이지(Pentaport Stage)와 게임존(Game zone), 다양한 눈요깃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펀존(Fun zone), 3천명 이상이 함께 텐트를 치고 즐기는 캠핑존(Camping zone),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Food zone) 등 시간별로, 용도별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빅탑 스테이지는 페스티벌의 중심무대로 태풍에도 끄떡없도록 호주에서 직접 공수해서 꾸민다. 국내 야외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길이 26m, 너비 40m, 높이 20m에 이르는 대형 망수 지붕을 갖춘 스틸 트러스(Steel Truss)스테이지가 세워져 그 위용을 과시한다. 어떤 악천후에도 거뜰히 버틸 수 있는 안정성까지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2만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2006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 땅에 락음악이 상륙한 이후 열리는 가장 큰 야외 락페스티벌이다. 락마니아들이 페스티벌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려왔던지 지난 5월 8일 15만권의 3일권 티켓을 2천장에 한정해 12만원에 판매한 이벤트는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매진되기도 했다. 페스티벌 개최가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등 인천의 여름이 락으로 더 후끈 달아오를 듯 하다.



오전 9시~오전 12시

게임존(Game Zone)에서 몸풀기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전 내가 주인공이 되는 몸풀기 게임을 하면서 무대의 아티스트와 한 몸이 될 준비를 한다. 음악 체험 시뮬레이션 게임인 Pump 등 각종 게임과 체험 이벤트를 통해 무대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공연에 눈과 귀 그리고 몸을 맡길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기며 페스티벌의 재미는 두 배가 된다.

오후 2시~오후 11시

메인스테이지(Big Top Stage)에서 락의 매력에 푹 빠지기

페스티벌의 중심 무대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7일은 인천시민을 무료로 초대해 경축전야제를 갖는다. 28일에는 스트룩스, 넥스트, 스노우파트를, 피아, 슈가도넛, 예예예스의 무대를, 29일에는 플라시보, 블랙아이드피플, 싸이, 드래곤애쉬, 시나위, 크래쉬, 바셀린의 열정을, 30일에는 프란즈 퍼디난드, 넬, 이한철의 공연에 제대로 빠져본다. 특히 그날의 헤드라이너공연은 밤 9시 30분에 시작되니 놓치지 말 것.

오전 10시~오후 9시

펜타포트스테이지(Pentaport Stage)에서 또다른 락 발견하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한 국내외 주류, 비주류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펼치는 음악적 실험무대는 주류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오후 11시~새벽 4시

그루브스테이지(Groove Stage)에서 레이브 파티 즐기기

펜타포트 스테이지의 심야 프로그램이 열리는 무대다. 메인스테이지가 끝나면 대규모 야외 레이브 파티(Rave Party)-DJ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테크노 음악에 맞추어 밤새워 춤을 추는 파티-에서 국내외 유명한 DJ들이 이끄는 열정적인 파티에 몸을 맡겨보자.

새벽 4시~ 오전 9시

캠핑존(Camping Zone)에서 편하게 휴식하기



흥겨운 락에 취해 몸과 마음까지 노곤해졌을 시간. 텐트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잔디밭을 중심으로 약 1천동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이 운영된다. 이곳은 3천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젊은이들의 캠프가 된다. 캠핑장에서 즐기는 이들을 위해 야외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오후 12시~ 오후 2시

쿨존(Cool Zone)에서 반짝 더위 식히기



한여름의 태양이 작렬하는 시간. 뜨거운 태양은 잠시 피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 대형 물 분수, 그늘막 카페 등에서 뜨거운 7월의 태양을 식힐 수 있다. 참여자들이 편리하고 시원하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제공되니 여름철 야외 음악 축제의 불편은 잊어도 좋다.

오후 2시~오후 4시

펀존(Fun Zone)에서 색다른 재미 느끼기



재미있는 휴식과 기분전환을 테마로 하는 펀존에서 바닷가의 정취를 느껴보자. 모래조각전을 비롯해 머드체험존, 태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섀넌 존 등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 코드인 X-Game 체험존과 흥대 거리 축제와 오픈 마켓 등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만 하다.

아무 때나 푸드존(Food Zone)에서 세계 음식 맛보기

금강산도 식후경. 하지만 먹거리 걱정은 할 필요 없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로 2,30대의 젊은층인 것을 고려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푸드존에 마련된다.



알고 즐기면 더 재밌다 Rock Festival

락이란?

락은 로큰롤(rock' n' roll)의 준말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열광적인 댄스음악이다. 음악적으로 로큰롤은 미국 남부 흑인들의 독특한 대중음악 형태인 블루스에 강한 비트가 가미된 리듬 앤드 블루스(Rhythm & Blues : R&B)에다 미국 남서부의 카운트리 · 광부 · 농부 등 백인 육체노동자들의 통속적인 대중가요 컨트리뮤직이 적당히 뒤섞여 젊은이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대중가요 형태다. 리듬 패턴이나 감성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팝송의 귀감이 되었고 차차 예술적 감각이 가미되어 좀더 세련된 음악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Rock Festival의 시작 'Wood Stock Festival'

1969년 지금은 작고한 히피 프로모터 빌 그래함(Bill Graham)에 의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락페스티벌의 형태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모일 곳이 필요했으며 일탈의 해방구가 필요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냉담, 전쟁과 테러의 반목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했던 60년대 히피 문화의 최대의 사건이 바로 Wood Stock Festival이다. 발행한 티켓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모여 결국 무료행사가 되어 버린 이 3일간

의 행사는 음악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주창했던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는다.

현대 락페스티벌의 실제적 근간 'Glastonbury Festival'

1970년부터 영국의 Somerset주의 Worthy Farm이라는 거대한 농장에서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로 현재 락 음악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Glastonbury Festival은 세계 3대 락 페스티벌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 1일 관람객만 해도 약 15만~20명이 된다. 매년 여름 전세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함께 휴가를 즐기 위해 모여든다. 서커스, 매직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많아 가족 종합 음악축제로도 손꼽힌다.

아시아 최고 락페스티벌 'Fuji Rock Festival'

1997년 텐진야마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후지락페스티벌은 소규모 인디락 페스티벌로 시작해 이듬해 도쿄에서 열린 후 1999년부터 지금까지 나에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발 1,000m에서 즐기는 환경 친화적 축제로 해마다 약 1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3대 락 페스티벌의 하나로 발돋움했다.

막상막下

이 탈의 공연

극단마임 일상밴드

광대가 기타를 메고 등장한다. 한껏 몸을 뽐내는 광대는 기타로 음을 맞추며 관객들을 하려금 어떤 소리가 나올까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어 나오는 소리는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광대들이 어깨에 나팔같은 것을 메고 나온다. 페트병을 잘라 만든 나팔이다. 북을 맨 광대가 등장하고 광대들이 무대에 모두 나와 북소리에 맞춰 음을 기다리고 낚이는 소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일시 _ 7월 2일(일)~6일(목) 평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772-7361 (www.clownmime.co.kr)



기상과학 체험 어린이뮤지컬 판도라의 날씨 상자

딱딱한 과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다. 괴짜이자 용감한 과학자 구름박사와 와 조수 바람들이가 등장해 재미있는 동작과 유머로 기상과학을 쉽게 보여준다. 무대의 불꽃놀이, 객석과 무대에 날리는 눈과 비, 바람 등의 특수효과와 첨단 장비로 기압, 구름, 바람, 비, 눈 등의 기상현상을 무대에서 환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일시 _ 7월 8일(토)~9일(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 (R석) 25,000원 / 2층 (S석) 2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011-322-6304)

어린이통합캐릭터 뮤지컬

홍부리 소년과 도깨비 장단

탈인형, 막대인형, 그림자인형과 우리의 고전가락으로 만들어진 노래와 배경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통합뮤지컬이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일깨워주며 아기도깨비와 흑이를 통해 악숙과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신나는 난타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더해준다.

일시 _ 7월 22(토)~25일(화) 주말 오후 2시, 4시

평일 오전 10시 20분, 11시 30분

장소 _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 8,000원

문의 _ 계양문화회관 (551-6602)

동요콘서트 맨날맨날 우리만 자래

'백창우와 쿨링쇼아일랜드'이 만든 동요콘서트로 전래동요, 창작 생활동요, 어른들을 위한 동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음악축제다. 아이들이 직접 쓴 노랫말에 백창우 씨가 곡을 붙여 만든 레퍼토리들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성장일지들이다.

일시 _ 7월 12일(수)~16일(일) 12일, 13일, 14일 오전 11시 15일 오후 3시, 6시 / 16일 오후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

문의 _ 휴매니지먼트(546-5532)

이탈의 展

제9회 신종택 조각전 뿔은 초형적으로 그자체가 갖는 기능적 의미와 좌우대칭의 긴장미 때문에 정지된 조상(肖像)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종택 개인전에서는 과장된 역동성보다는 작품 스스로의 질서와 긴장미에 주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조형미를 보여준다. (011-328-9376 / www.sindulrim.com)

백혜정 한국화전 4개월 성장하고 소멸하는 들꽃과 풀 등 자연의 무한한 색(色)과 형(形)의 변화에 대한 작가의 관찰과 표현을 진채의 한국화 기법으로 담은 작품 20여점이 7월6일부터 12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된다. (430-1157)

문화센터회원 작품전 (430-1157)
6월29일~7월5일, 신세계갤러리

제12회 서현화전 (561-4190)
7월14일~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배송자 개인전 (마음의고양 자연전) (011-9833-2079)
7월14일~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마추홀전시실

조규정 서양화전 (430-1157)
7월20일~7월25일, 신세계갤러리

도시유목-Good 'buy incheon' (422-8630)
스페이스팀 7월21일~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조각그룹 <각> 정기전 (011-9966-8230)
7월21일~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형시상화정기전 (011-448-8354)
7월21일~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5회 인천스케치 아카데미전 (011-9781-1322)
7월21일~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마추홀전시실

산동-인형 교류전 (011-9781-1322)
7월28일~8월3일
인천수채화협회

인천스케치화협회 회원전 (011-705-3931)
7월28일~8월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7월

일	화	수	목	금	토	일																					
3 인어공주 (~27) 평일 오전 10시50분(단체) 토 오전 11시, 오후 3시 파리세상 소극장 1만2천원 016-774-0014	4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음악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인천상공회의소 810-2854 여성극 <이문열의 선택> 공연 오후4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 공연장 / 초대 / 남구청시화복지과 880-4287	5 2006 여성주간 기념식 오전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시 여성정책과 440-2695	6 여성주간 기념공연 <별팔랑이 소녀> 오전 11시, 오후 2시 여성의 광장 초대 여성주간 기념공연 <별팔랑이 소녀> 이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7 여성주간 기념공연 별팔랑이 소녀 오전11시 오후 2시 비빔다비배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 시 여성정책과 440-2693 금요예술무대 <열정의 무대 패셔너이즈 & 합참단>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420-2717	8 WOW 산하는 우리들(수화공연) 오후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청소노동자연대 / 528-3669 과화뮤지컬 <판도라의 날씨상자>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아범에게린 인어공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2천원 서울도깨비 / 031-973-4608	9 과화뮤지컬 <판도라의 날씨상자>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15천원, 2만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아범에게린 인어공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2천원 서울도깨비 / 031-973-4608	10 바다사랑음악회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초대 대공연장 / 초대 (사)바다사랑기독교인운동본부 02-752-9641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11 2006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내함공연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한국아카데미 031-932-8370	12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13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 휴매니지먼트 / 546-5532 결사학생들기 열린음악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만원, 2만원 / 남동구사랑나눔 / 453-2500 제184회 금요예술무대 <중국 기예단의 변장과 피포먼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 420-2717	14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 휴매니지먼트 / 546-5532 결사학생들기 열린음악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만원, 2만원 / 남동구사랑나눔 / 453-2500 제184회 금요예술무대 <중국 기예단의 변장과 피포먼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 420-2717	15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 휴매니지먼트 / 546-5532 결사학생들기 열린음악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만원, 2만원 / 남동구사랑나눔 / 453-2500 제184회 금요예술무대 <중국 기예단의 변장과 피포먼스>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 420-2717	16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17 오즈의 마법사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한중문화관 1만2천원 016-774-0014	18 서울뮤지컬리뷰모케스트라 청소노동자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238-9839	19	20	21 제185회 금요예술무대 <열정의 비르드웨이>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 420-2717 그림자도둑2(Shadow Thief 2) 오후 2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 1588-7890	22 그림자도둑2(Shadow Thief 2) 오후 2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 1588-7890 홍부리 소년과 도깨비 장단 (~25) 수일 오후 2시, 4시 평일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계양문화회관대공연장 1만, 8천 / 551-6602	23 그림자도둑2(Shadow Thief 2) 오후 2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1588-7890	24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25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26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27 백창우아저씨와 쿨링쇼아일랜드의 동요공연 <맨날 우리만 자래>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창 / 상인 1만원, 어린이 5천원 휴매니지먼트 546-5532	28 제186회 금요예술무대 <여성전지현의&종주 벨라트릭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 420-2717 인어공주 오전 10시20분, 11시20분 계양문화회관소공연관 1만2천원 016-774-0014	29 인어공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계양문화회관소공연관 1만2천원 016-774-0014	30 인천신교!어티청소단음악회 오후 5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5천원 816-7257

부평문화사랑방 금요상설무대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 길전2동사무소) 티켓 - 무료 문의 - 505-5995	클래식의 밤 〈금관악기 5중주〉 〈목관악기 4중주〉 7월 7일(금) 오후 7시30분 퓨전국악 〈퓨전코리아〉 7월 14일(금) 오후 7시30분	   비보이 <익스트림 크루> 7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	---	--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11회 여성주간 및 제3회 남녀평등의 날 기념 문화행사

뉴에이지그룹 비온뒤&금마루

7월 5일(수) 오후 3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정갈한 연주와 전통악기인 대금의 음색이 어우러진 동양적 색채의 크로스오버 연주그룹 <비온뒤 b.on.d>와 바로크 스타일의 클래식음악을 아름다운 음색으로 표현하는 <금마루 gummaru>의 공연.



뮤지컬 바쁘다바빠

7월 6일(목)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극단 <해오름>의 뮤지컬 '바쁘다바빠'는 빈민 가정을 중심으로 그 식구들의 시각 속에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여러 면을 펼친 작품이다. 한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약한 현대인의 모습과 자기중심주의와 방관을 이야기 한다.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소녀

7월 6일(목) 오전 11시, 오후 2시 / 여성의 광장

7월 7일(금) 오전 11시, 오후 2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말괄량이 삐삐'를 각색한 뮤지컬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웃음과 해학, 그리고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며 현대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족뮤지컬.



마당극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7월 6일(목) 오후 6시 / 인천여성문화회관 대강당

민속예술극단 '우금치'가 펼치는 가족폭소 마당극으로 전국 공연을 통해

20대 신혼부부에서부터 황혼의 노부부까지 박수와 갈채를 받은 최고의 마당극.

퓨전그룹 '黃眞伊(황진이)'

7월 4일(화) 오후 2시 / 서구문화회관

다양한 실험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며 대중성까지 겸비한 퓨전그룹 <黃眞伊(황진이)>는 우리의 전통악기 해금, 가야금, 대금을 주축으로 서양의 전자바이올린, 전자첼리스트를 멤버로 구성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매너와 환상적인 사운드, 친숙한 레퍼토리도 함께하여 관객들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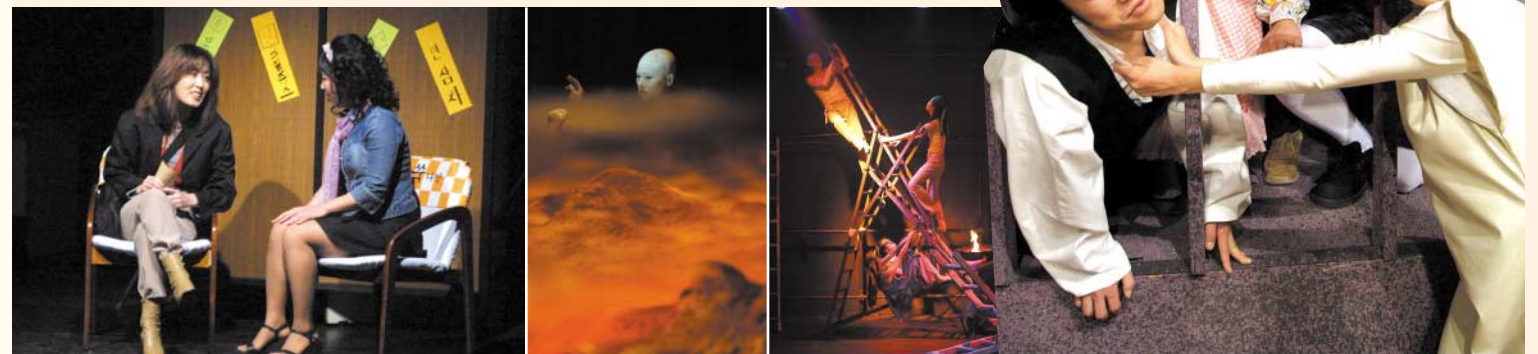


2006 인천 비타민 연극축제

일시 _ 7월 8일(토) ~ 8월 13일(일) 장소 _ 학산 소극장 및 인하대 후문일대

비타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듯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예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연극이라는 모토 아래 젊고 창작의욕이 넘치는 극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다가가 공연축제를 연다. 원하는 장소로 공연을 배달해주는 철가방 프로젝트, 문학경기장이나 관교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펼쳐지는 즉흥 거리극 번개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연극, 마임, 부토, 타악 워크숍 등 다양한 '비타민'이 준비돼 있다.

문의 _ 비타민 연극축제 사무국 (814-4572 / www.ivaf.net)



구 분	기 간	내 용
비타민 개막식	7월 8일(토)	박혜경 무용단 공연 외
극단 인천 <보석과 여인>	7월 9일(일)~11일(화)	여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이룩한 세공술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강요 당하는 늙은 장인 이야기.
코퍼럴씨어터(몸끝) <리어카 뒤집어지다>	7월 12일(수)~14일(금)	이사, 가난한 사랑, 투쟁, 축제의 네 씬으로 구성된 <리어카, 뒤집어지다>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시각적 메타포의 확장으로 관객과 만나며 오브제의 상징성 위에 배우들의 움직임이 주체가 되어 이미지의 변형을 주도하게 된다.
김원범 마임컴퍼니 <봄이 오면>	7월 15일(토)~17일(월)	다양한 움직임과 표현을 위해 제작된 인형과 훈련된 마임이스트의 몸짓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몸짓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극단 동이 <나비>	7월 19일(수)~20일(목)	페르시아 문명의 휴머니즘적 철학이 질게 깔린 재미있고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뮤지컬의 선율로 표현된다.
극단 공감 <마요네즈>	7월 22일(토)~23일(일)	조금은 특이하고 유별난 엄마와 이미 그런 엄마를 마음속에서 밀어 내버린 딸의 어색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엄마는 딸을, 딸은 엄마를 생각하게 한다.
극단 집현 <애랑야곡>	7월 24일(월)~26일(수)	해학과 풍자의 백미인 고전 <배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골게미 뛰어난 마당놀이
제주 자파리 연구소 <섬이야기>	7월 28일(금)~30일(일)	다양한 이미지들과 상상들을 마임, 샌드애니메이션, 인형, 다양한 오브제 등을 이용해 제주섬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부토 천공요람 <악의 꽃>	8월 1일(화)~3일(목)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의 이미지를 '부토'와 '영상'이라는 장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재구성하고, 장르와 장르의 만남을 시도하여 새로운 형상의 실험적이며 독창적인 작업을 보여준다.
극단 여행과 꿈 <소꿉놀이>	8월 5일(토)~7일(월)	외톨이 재경의 생애 첫 소꿉놀이, 그리고 한 여인의 생애 마지막 소꿉놀이. 그들 인생 최고의 순간, 그 행복한 기다림과 설렘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극단 보아스 <락희맨 쏘>	8월 9일(수)~12일(토)	우연히 지상으로 내려온 천국 최고의 소주 침이슬주. 그에 얽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즐기는 사이 관객들은 어느새 인간성 회복이라는 희망을 확인하게 된다.
비타민 폐막식	8월 13일(일)	workshop발표 및 비타민상 수상

※연극공연 평일 오후 7시 30분, 공휴일과 주말 오후 4시, 7시. 단, <봄이 오면> 주말공연 7시 / 관람료 일반 1만2천원, 학생 7천원

국제 IT교육 ‘선생님’ 이 되다

지난 6월16일 우리나라 IT역사는 물론, 국제 IT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일이 송도국제도시에서 거행됐다. 유엔 산하기구인 APCICT(아·태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가 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튼 것이다. 앞으로 송도가 IT 분야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최첨단 IT교육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UN기구

2004년 1월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김학수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내에 APCICT(아·태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제의에 따라 국내 후보지를 추천받고 최적지를 검토한 결과 IT의 허브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우리시를 국내 최초의 UN APCICT 유치 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1차 연례총회에서 UN ESCAP은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APCICT)를 인천에 설치할 것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총회의 결정은 우리시가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IT분야의 리더로서 확고한 주도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고도 지식기반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송도국제도시가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IT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꼽힌 것이다.

정부와 우리시는 UN ESCAP 대표단과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하고 지난 1월 APCICT 설립 협정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6월16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김학수 UN ESCAP 사무총장, 조준형 정보통신부장관, 탐피 교육센터 임시소장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APCICT 유치 의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센터인 APCICT는 앞으로 아·태지역 62개 UN ESCAP회원국에서 선발된 정책결정자, 전문관리자, IT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회원국의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자문, 교육컨텐츠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 아니라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각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유엔의 이념을 구현하는 곳이다. 때문에 이번 개소는 유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6년 설립된 유엔 특별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서울에 있지만 정부간 국제기구일 뿐 정식 유엔기구는 아니다. 이번 UN APCICT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유엔 산하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센터 개소는 우리시의 국내최초 UN기구 유치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UN APCICT가 앞으로 한국기업의 아·태지역 진출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보통신 업체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자료제공 _ 시 과학기술과 440-3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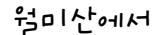


또 다른 뉴스

정통부와 송도 u-IT 클러스터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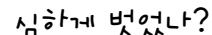
지난 6월 16일 우리시와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는 송도라마다호텔에서 'u-IT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서' 체결식을 갖고 사업 추진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와 같은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을 만들기 위해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통부는 건축장비도입·시설운영, 선도사업 등에 2천928억원을 투자하고 우리시는 건축비 508억원과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 일정은 올 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IT중소기업 육성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유비쿼터스 IT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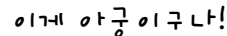


온 가족이 월미산에 갔습니다. 비온 후 날씨가 맑아 멀리 영종도도 보이고 인천 앞바다가 선명하게 잘 보였답니다. 바다위에 건설되는 인천대교형상도 잘 보였습니다. 고향이 용유도여서 그런지 건설되는 다리가 더 친근해 보였습니다. 2009년 10월이 된 지 바다 위엔 멋있는 인천대교가 서 있겠조?

이정숙 (남동구 간석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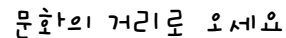


유치원 캠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도 팬티는 입었네요.
안보여서 그렇지...
부끄러운 표정들이 너무 없지요?
한재진 (서구 가정3동)



엄마도 아궁이에 불 지피셨어요? 지난 봄 전북 진안의 한 펜션에서 가마솥이 달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무척이나 신기해하는 두 아들과 옆에 꼬리를 흔들며 서 있는 정말 착한 삼손이(강아지 이름). 그날 우리 식구는 고구마와 감자로 구워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김종수 (남동구 만수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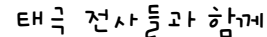
오랜만에 찾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어느새 못보던 조형물들도 늘어나고 거리를
오가는 꽃차의 모습과 거리공연...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리의 화가님들
까지... 인천에 살면서 정작 변화해 가는 인천곳곳의 모습을 놓치고 살고 있는것
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름다운 제교향 인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신진희 (남동구 간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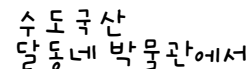
의정한 모습을 남기려고 사진관을 찾았다.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도널드와 딱 어울린다고 이 복장을 입혀 주셨다. 4.6kg의 거구로 태어나서인지 모자가 맞질 않아 뒤를 살짝 뜯어야만 했다.

정윤아 (연수구 연수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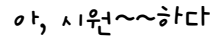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태극전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함께 찍은 사진 같지 않나요? 원래는 실물크기의 모형이라합니다.
태극전사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최영숙 (남구 용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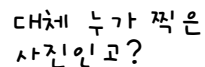
얼마전 송림동 수도국산을 가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적 모습과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시 아들과 같이 가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아들이 얼굴이 너무 작다고 하여 얼굴 사진만 편집하여 넣었더니 만족해 합니다.

이충기 (남구 송의4동)



몇 년 전 가족끼리 용추계곡으로 피서를 갔어요. 계곡 물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아이가 물 속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한참 후 “엄마~”하고 부르더니 큰 소리로 “나, 여기서 쉬 했어요~” 합니다. 옆 텐트에서는 고개를 내밀고 킁킁대고 웃고 제가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많이 시원하긴 했나봐요. 저 표정이라니...

임순정 (서구 검암동)



서울 어느 대형서점에서 self 사진. 오
메? 도대체 어떻게 찍은거지?
박길성 (연수구 선학동)



수박모자와
찍기 춤

10년전 사진입니다. 교회에서 가좌동에 있는 기도로원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은 수박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벌칙이 있었는데 저도 걸리고 말았어요. 수박모자와 꺾기 춤 너무 잘 어울리죠?

최종화 (경기도 안양시)



$0 = 1 \cdot \frac{2}{5} \cdot 41 \cdot 21 \cdot \frac{1}{10} \cdot 51$
 0 일 때는 $\frac{1}{10}$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덕적도

자월도 · 승봉도 · 이작도

영흥도 · 선재도 · 장봉도 · 신도 · 시도 · 모도

용유도 · 무의도

강화도 · 석모도 · 불음도 · 주문도 · 교동도

섬으로 가는 배 정보



사진·김성환·김정식 (자유사진가)

쉽... 안식의 계절이 왔다

휴식은 창조이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시(時)테크이고

시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쉽테크이다

바람소리가 음악이 되는 곳

반딧불이가 별이 되는 곳

올 여름엔 인천 앞바다 섬에서 쉼을 얻자

피서(避暑)라기보다 피세(避世)

잠시 세상을 잊고

해(海)맑은 인천 섬에서 무(無)더위를 만끽하자

쫄쫄쫄한 바다 내음으로

푸석푸석한 도심의 뻑뻑함을 말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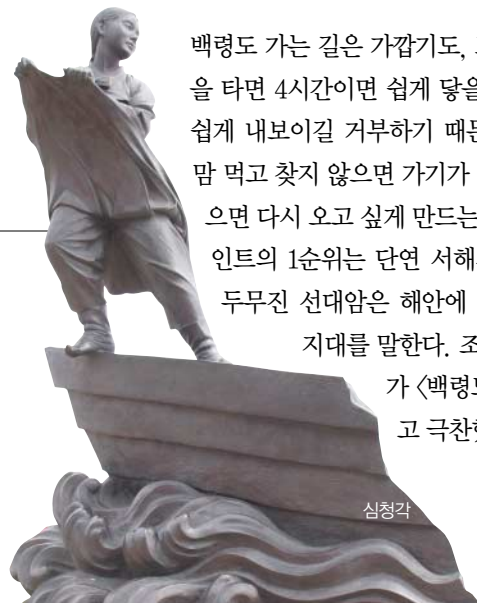
쉴... 그곳에서는
시간도 잠자고 있다



두무진

멀어서 더 그리운 섬

백 · 령 · 도



심청각

백령도 가는 길은 가깝기도, 또 멀기도 하다.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면 4시간이면 쉽게 닿을 수 있지만 바다 안개는 섬의 속살을 쉽게 내보이길 거부하기 때문이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답게 맘 먹고 찾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 않은 섬이지만 백령도는 한번 찾으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곳이다. 그 매력 포인트의 1순위는 단연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두무진이다. 두무진 선대암은 해안에 약 400m에 걸쳐 기암절벽이 발달한 지대를 말한다. 조선 광해군때 이곳으로 귀향은 이대기가 <백령도지>에서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기이한 경관을 자랑한다.

두무진의 진면목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람선을 타고 포구를 빠져 나가자마자 왼편으로 기암괴석이 이 마치 사열하듯 늘어서 있다. 선대암을 비롯해 신선바위,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형제바위, 병풍바위, 남근바위 등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비경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행객들은 연신 탄성을 내뿜는다.

유람선을 타고 두무진의 비경을 감상하다가 운이 좋으면 바위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을 만나는 행운을 가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매력포인트로 꼽을 만한 곳은 **사곶해수욕장**. 세계에 두 곳 밖에 없다는 천연비행장으로 유명하다. 비행기 바퀴가 구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라니 낯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고운 모래사장 위를 드라이브 하는 맛은 이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쾌감이다. 모래도 좋거니와 해변의 물빛도 동해의 그것과 흡사하다. 동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여름에도 피서 인파로 북적거리지 않아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곶해수욕장 뒤쪽으로는 방풍림으로 조성한 검푸른 송림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파도소리를 내는 **콩돌해안**은 모래대신 구슬 같은 자갈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콩처럼 작은 돌멩이들로 가득 차 콩돌이라고 불리는데 백색, 회색, 갈색, 적갈색, 회색 등 빛깔도 다양하다. 햇볕에 달궈진 자갈 위에 누우면 천연 찜질방이 따로 없다. 콩돌해안은 오금포와 중화동 남쪽 남포리 해안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남포리의 콩돌해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니 돌멩이가 예쁘고 특이하다고 배낭 가득 담아오는 일은 삼가야 한다.



사곶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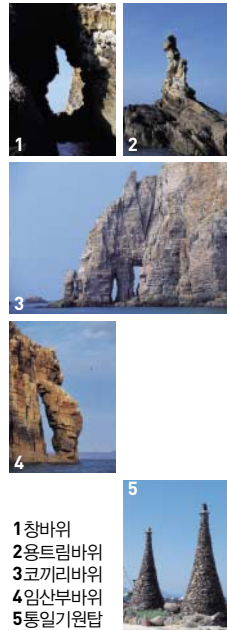


콩돌해안

백령도는 소설 심청전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심청각**은 지난 1999년 심청이의 효 의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건립됐다. 심청각에는 심청전을 원작으로 하는 판소리, 영화, 고서, 소설 등이 전시돼 있다. 심청각에서는 맑은 날이면 북한 땅이 건너다 보여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밖에도 1896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중화동교회, 백령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과 통일을 염원하는 소망을 돌 하나하나에 담아 정성으로 쌓아 올렸다는 용기포의 통일기념탑, 장산곶과 인당수가 내려다보이는 두무진 통일기원비, 심청이 연꽃으로 부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연봉바위, 세계적으로 드문 진촌리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등을 빼놓지 말고 둘러 봐야 한다.

Tip _ 용기포에서 배를 빌려 나가면 백령도의 또 다른 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다에는 마치 창문이 뚫린 듯 바위에 구멍이 뚫린 창(窓)바위, 긴 코를 자랑하는 코끼리바위, 곧 하늘로 용이 올라갈 듯 뻗어있는 용트림바위, 배부른 임산부바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백령도는 여행상품이 잘 발달돼 있다. 백령도 안에서 여행사나 렌트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도 있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두무진에서 유람선을 타려면 백령관광(836-1132) 해당 화관광(836-1448) 선대관광(836-0755)을 이용한다. 요금은 성인 8천원, 중고생 7천원, 어린이 5천원



1창바위
2용트림바위
3코끼리바위
4임산부바위
5통일기원탑

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하루에 두 차례 배가 다닌다. 배편문의는 진도운수(888-9600), 온바다(884-8700) **숙박 _** 변화가라 할 수 있는 진촌리 근처에는 깨끗한 모텔이 여럿 있고 민박도 흔하다. **문의 _** 백령면사무소(836-1771~2)



대소 : 청청 : 도도

바람과 파도가 만든 모래섬

지두리해수욕장



사탄동해수욕장

대청도에서는 하늘보다 바다가 하늘빛에 더 가깝다. 감청색 바다를 보면 외락 달려들어 발을 담그고 싶다가도 정작 물 앞에 서면 망설여진다. 때문지 않은 자연에 미안함이 들기 때문이다. 섬을 돌아 방목하는 염소들을 만나거나 바닷가 물웅덩이마다 송어가 노니는 것을 보면 섬이 자연 그대로 호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배에서 내린 낚시꾼들이 어디에 숨어 낚시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한적하다. 집집마다 빨래줄에는 옷가지 대신 한가롭게 팔랭이가 널려있고 바닷가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어귀마다 젓통(대청도에서는 젓갈통을 줄여 이렇게 부른다)들이 줄지어 있다. 이 젓통에는 대청도의 특산품인 까나리액젓이 숙성되는데 섬사람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어머니의 젓통과 같은 존재다. 섬을 빙~ 둘러 6~7개의 해변이 있다. 저마다 이름이 다르듯 그 특징도 달라 입맛에 맞는 해변을 골라 섬의 체취에 흠뻑 빠져도 좋겠다.

옥죽동해수욕장을 거닐면 동요 '해당화'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옥색바다와 붉은 해당화가 조화를 이루고 통쾌한 파도소리에 알싸한 해당화 향기가 더해지는 해수욕장이다. **농여해수욕장**은 힘차게 걸어도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고운 모래가 쌓여 있다. 모래사장의 높이가 달라 물이 빠지면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 천연 풀장을 만든다. **지두리해수욕장**은 자로 반듯하게 재단한 듯한 모습으로 해수욕은 물론 모래위에 송송 뚫린 구멍을 따라 비단조개를 캐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탄해수욕장**은 우리나라 10대 해수욕장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사탄(沙灘)이라는 이름처럼 희고 고운 모래가 많고 다른 해변에 비해 유난히 파도가 높아 이국적인 풍치를 자아낸다. **독바위해변**은 '데구르르~ 포르르르~' 파도 소리가 좀 색다르다. 큰 바위부터 작은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돌들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시기만 잘 타면 물빠진 바위틈에서 짭조름한 석화를 캐먹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해수욕을 하기보다 낚시에 제격인 해변이다. **담동해수욕장**은 해안선을 따라 노송이 울창하게 자라고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소청도는 대청도를 바라보며 자식 섬마냥 도리도리하고 있다. 푸른 하늘과 바다에 대조를 이루는 흰색의 **소청등대**가 우뚝 서있어 마치 등대가 주인처럼 마중나온 듯 하다. 이 등대는 1908년에 설치됐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 하얗게 섬을 둘러싼 **분바위**가 이국적인 풍치를 연출한다. **노화동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낚시를 즐기기 위해 소청도를 찾는다. 아직 태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섬이라 전문 숙박업소와 대중 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섬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으면 민박과 차편을 이용할 수 있다.

Tip _ 대청도 옥죽동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가 쌓여 천연사구를 형성해 사막체험을 할 수 있다. 가로 2km, 세로 1km의 모래언덕을 걸으면 사하라사막에 와있는 기분이다.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북단 동백나무 북한자생지와 150년 수령 이상의 노송 200여 그루가 울창한 노송보호지역도 볼거리다. 낚시로 유명한 서풍바위와 해안선을 멀리 굽어볼 수 있는 정자각도 빠뜨릴 수 없는 코스이다. 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옥죽동모래사막

서풍바위

가는 길 _ 배편 : 연안부두에서 하루 두 번 쾌속선이 운행되며 3시간 40분정도 소요된다.(진도운수 888-9600/온바다 884-8700) 섬내 : 농어촌공영버스 1대가 1일 8회 운행되며 개인택시도 2대(836-1359, 836-0064)가 있어 미리 예약하면 섬 투어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민박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숙박** _ 대부분의 여관과 여인숙이 대청2리 선진동에 모여있고 섬 곳곳에 깨끗한 민박집이 많다. **문의** _ 대청면사무소(836-2004), 소청출장소(836-3301)



연 · 평 · 도

태고의 신비를 내뿜는 섬

인천에서 1백27km, 북한 해주에서 6km, 연평도는 북한땅과 더 가까운 섬이다. 연평도의 산과 바다, 그리고 절벽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오히려 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 백미는 **‘빠빠용 절벽’**이다. 절벽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는 숲길도 환상적이며와 조망이 빼어난 빠빠용 절벽에 서면 누구나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빠빠용 절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변이 가래칠기이다. **가래칠기해변**은 알록달록한 자갈과 굵은 모래알들이 발에 밟히는 천연해변이다. 군데군데 넘적한 바위들이 터를 닦고 있어 아무데나 걸터앉으면 그곳이 곧 그 쉼터가 된다.

섬 북서쪽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해수욕장인 **구리동해수욕장**은 1km 길이에 200m 폭의 은빛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손으로 한 움큼 잡아도 손바닥에 한 알갱이 남지 않고 쏟아져 내릴 만큼 모래가 곱고 해당화가 곱게 피는 방파제가 해수욕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어 아늑한 맛을 풍긴다.

연평도 해안은 수석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병풍을 처놓은 것처럼 보이는 **병풍바위**, 팔베개를 하고 누운 농부처럼 보이는 **와상바위**,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송곳바위(아이스크림바위)**, 열심히 걷는 거북이 모습을 닮은 **거북바위** 등이 저마다의 기이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연평도는 한때 ‘조기의 섬’이었다. 조기잡이가 한창일 때는 부두 전체가 배들로 붐벼 배 위를 걸어서 가까운 섬까지 갔고 개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온다. 전설의 흔적은 섬 곳곳에 남아 있다. **충민사**는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청나라를 치기 위해 그가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들러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은 것이 연평도 조기잡이의 유래가 되었다.



가래칠기해변



연평도 등대



조기탑

조기역사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파시’의 섬 연평도의 역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 전망대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마을 안쪽에는 조기파시의 옛 영화를 말해주는 조기탑이 서 있다. 이 섬의 상징과도 같은 **연평도 등대**는 언덕위 풍경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 옛날 조기떼를 쫓아 이곳에 온 수백척 어선의 길잡이 역할을 한 이 등대는 이제 빛도, 소리도 없이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의 영화를 되새기고 있을 뿐이다. 등대 위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면 소연평도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마을 앞 모의도 바위섬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은 마치 동해바다의 일출을 연상할 정도로 장엄하며 구지도 3개 섬과 갯벌 사이로 지는 노을은 여행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해가 지고 나면 연평도는 다른 빛이 섬을 지킨다. 마을 앞에 길게 놓여진 연륙교의 야경이 섬의 밤을 밝히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구리동해수욕장

Tip _ 연평도는 해수욕장도 유명하지만 바다낚시의 명성도 자자하다. 6월부터 10월까지 인근 연안에 농어, 준치, 광어, 우럭, 놀래미 등이 물려들어 물때를 잘 맞추면 이쪽 저쪽에서 ‘물반, 고기반’이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온다. 갯바위에서도 낚시대를 드리우면 우럭, 놀래미, 숭어 등 씨알이 굵은 놈이 손맛을 즐겁게 한다.



가는 길 _ 인천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실버스타호(진도운수 888-9600)나 씨플레인호(우리고속 887-2891)를 탄다. 약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운임은 편도 25,400원이고 실버스타호에는 차를 40대 가량 실을 수 있다(소형차 기준 6만9천 원). 평소에는 두차례 다니지만 피서철에는 증편된다. 날씨에 따라 배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항도 찾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이 좋다. 섬 안에 대중교통은 없다. 숙소를 잡으면 민박집에서 차량 편의를 제공해주지만 섬 전체를 약 3시간에 걸쳐 도보로 관광할 수도 있다. **숙박 _** 장급여관과 여인숙, 민박집이 면사무소가 있는 연평리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문의 _** 연평면사무소 (831-4471)



서포리해수욕장

덕 · 적 · 도

‘낭만’이 철썩이는 섬



‘큰물’, ‘깊은 물’, 즉 수심이 깊은 섬이란 뜻을 지닌 덕적도는 경관이 빼어난 서포리해수욕장과 발지름해수욕장, 야생화가 펼쳐진 아름다운 몽돌 해변, 그리고 주변에 낚시를 던지면 걸릴 것 같은 작은 섬들을 달고 있다, 적당히 어우러진 들판과 푸른 산세, 드넓은 바다의 풍광과 갯벌 체험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낭만의 섬, 덕적도 일주는 승용차나 민박집 봉고를 이용해 2시간 정도면 족하다.

서포리해수욕장은 길이 2km, 폭 500m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수도권 제일의 해수욕장이다. 해변 근처의 민박집에서 내려다보면 바다라기보다는 내 집 앞마당의 호수 같은 정겨운 느낌을 준다. 낙조 포인트이기도 한 이곳은 갯바위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해안가 방파제와 갯바위에서는 낚시를 던지지만 하면 우럭과 놀래미가 올라온다. 썰물 때는 명주조개, 뼈투리, 참고둥 등을 무더기로 주울 수 있는 곳이기도하다. 텐트촌, 족구장, 노래방, 자전거 대여점 등 위락시설이 다양해 이방인들이 하룻밤 묵으면서 한여름밤의 꿈을 꿀 수 있다.

인근에 있는 덕적중·고등학교에는 200~300년은 족히 된 노송이 거대한 숲을 이루며 큰 울타리 역할을 한다. 공을 차면 바다로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 공을 주우러가는 아이들은 이내 바다로 뛰어들어 공과 함께 자맥질을 하며 바다와 함께 논다.

발을 가로질러 간다고 해서 붙여진 **발지름해수욕장**에는 쪽빛바다를 배경으로 6백여 그루의 붉은 해송이 숲을 이뤄 바다의 울타리가 돼주고 있다. 수심은 1.5m내외로 가족 야영장으로 그만이고 물이 나가면 각종 조개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름 그대로 모래 대신 주먹만한 돌맹이부터 공기돌처럼 작은 자갈까지 뽁뽁하게 깔려있는 **능동자갈마당**에서는 바람이 파도를 길게 빨아들였다 다시 긴 호흡으로 파도를 밀어낸다. 물결이 밀려갈 때마다 따라 내려가는 자갈의 울림이 해조음과 함께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룬다.

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비조봉**이다. 해발 292m로 그리 높지 않아 잘 닦여진 능선을 타고 가면서 사방에 열려있는 바다를 향해 가슴 열고 ‘야호’를 외치면 육지세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간다. 비조봉에서는 장엄한 서해의 일출과 낭만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산세가 아름다운 탓에 섬이면서도 햇빛과 해풍을 맞아 자란 자연산 산포도와 산더덕 그리고 짙은 맛과 향이 독특한 덕적도의 무공해 특산물이기도 하다.



능동자갈마당



비조봉



소야도 뗏뿌루해수욕장



선미도 등대



굴업도 해수욕장



백야도 선단여

Tip _ 덕적도 주변에는 소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33개의 무인도가 바다 위에 올망졸망 가족처럼 떠 있다. 굴업도, 울도, 소야도, 백야도, 선감도, 각홀도 등은 ‘바다 수족관’이라 할 만큼 입질이 좋아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들이다. 봄부터 가을 무렵까지는 주로 우럭, 가을은 농어와 망둥어, 여름과 가을에는 놀래미, 광어, 도다리, 숭어, 돌돔, 장어가 많이 잡힌다. 낚시배는 마을마다 대여하는 곳이 많다.

소야도에는 700m 짜리 은빛 모래사장이 있는 뗏뿌루해수욕장이 있고 섬의 경관이 뛰어난 문갑도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약 300m 짜리 아담한 한할리해수욕장이 있다. 우리나라 등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미도 등대, 소야도의 장군바위, 그리고 애달픈 사랑의 전설이 깃든 백야도의 선단여와 꿈을 닮은 곰바위 등은 꼭 보고와야 할 명소이다. 이들 섬을 가는 방법은 이들에 한번씩 홀수 날에 덕적도 진리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해양호를 타면 된다. 물때에 따라 덕적도에서 문갑도(20분) 굴업도(50분) 백야도(1시간10분) 지도(1시간20분) 울도(1시간40분)로 가거나 그 반대로 다니기도 한다. 소야도는 덕적도까지 온 다음 종선을 타면 5분 정도 뒤에 소야리 도우선착장에 도착한다. 선미도는 덕적도까지 온 다음 복리에서 목선을 타야 한다.

가는 길 _ 인천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초래속선 프린세스호나 아일랜드호, 대부분에서 대부고속훼리(차량승선)를 탄다. 덕적도 안에는 마을버스가 다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숙박** _ 해수욕장 주변으로 여관이나 민박집들이 수두룩하고 텐트를 칠 곳도 넉넉하다. **문의** _ 덕적면사무소 (831-7701), 서포리번영회 (831-6623)



발지름해수욕장



대이작도 작은풀안해수욕장

‘검붉은 달’이란 낭만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자월도는 물놀이와 등산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섬이다. 달바위선착장에 내려 왼쪽 도로를 따라 5분여 달리면 어느새 **장골해수욕장**에 닿는다.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 물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해변 군데군데에 모래섬이 생긴다. 길이 1,000m 너비 40m의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백사장은 서해에서 보기 드물게 어찌나 고운지 노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하다. 해수욕장 뒤편으로는 솔밭이 있다. 군데군데 벤취도 놓여있고 꽃들도 심어져있어 작은 공원역할을 한다.

장골해수욕장에서 해안을 하나 돌아나가면 바로 큰말해수욕장이다. 면사무소, 보건소 등 ‘읍내’와 가깝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말해수욕장** 역시 백사장의 모래가 곱기 이를데 없다. 길이 800m의 백사장은 경사가 완만해 가족단위로 물놀이를 한 후 모래찜질을 하기에 그만이다.

자월도 여행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코스는 자월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국사봉 등산**이다. 면사무소 옆길로 오르기 시작해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등산로에는 친절하게 나무 계단이 차곡차곡 놓여있어 느린 걸음으로 쉬엄쉬엄 오르기에 적당하다. 정상에는 국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그곳에서 둘러보는 인천 앞바다의 덕적도, 승봉도, 인천항 등의 풍경은 또 다른 매력을 내뿜는다.

파도 끝자락에 걸친 섬



소이작도 손가락바위



대이작도 풀치

산에서 내려와 섬의 동쪽과 북쪽으로 향하면 색다른 바다가 펼쳐진다. 남쪽 바다가 고운 백사장에서 해수욕을 하기 좋은 바다였다면 북쪽의 **하늬깨**, 어류골 등은 백사장은 적지만 물이 맑고 빨대신 자갈이 깔려있는 바다라 갯것하기에 좋다. 물은 또 어찌나 맑은지 찰싹 찰싹 파도가 칠때면 마치 동해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자월도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로 유명한 대이작도가 있다. 대이작도 여행의 백미는 **풀치(일명 풀등) 탐험**이다. 밀물 때면 바다 속에 잠겼다가 썰물 때면 모습을 드러내는 대형 모래섬이 바로 풀치다. 30만평이나 되던 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지만 여름이면 풀치까지 다니는 배가 있을 정도로 모래섬에서 잠시나마 무인도에 온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대이작도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면 큰풀안, 작은풀안, 목장불, 떼넘어 등의 해수욕장을 찾으면 된다. **큰풀안 · 작은풀안해수욕장**은 백사장이 깨끗하고 조용한데다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가족단위로 물놀이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계남해수욕장**(일명 떼넘어해수욕장)은 백사장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해변보다 물결이 잔잔한데다 선착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히 여름 정취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계남해수욕장 인근에 마을이 있고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만든 ‘섬마을 선생 촬영장소’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



자월도 큰말해수욕장

대이작도 건너편 소이작도 안에는 약진너머, 별안 등의 해수욕장이 있고 섬 동편에 손가락바위가 눈요깃거리다. 손가락바위는 낚시를 위해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거나 대이작도 선착장을 출발해 인천이나 대부도로 향할 때 갑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봉황의 모양을 닮았다는 승봉도는 이일레해변을 제외한 섬 안의 대부분 해안이 자갈로 돼 있어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이일레해수욕장**은 하얀 백사장이 예쁘다. 남쪽 해안 앞으로는 무인도인 사승봉도가 펼쳐지고 백사장 한쪽에는 갯바위가 있어 푸근한 느낌을 준다. 물놀이를 하다 지치면 남대문바위, 부채바위를 찾아 자연이 빚어놓은 절경을 감상하며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다.

Tip _ 대이작도의 부아산은 섬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으로 오르는 빨간 다리가 인상적이다. 승봉도에서 배를 빌려 타면 무인도인 사승봉도에 갈 수 있다. 사승봉도는 고운 모래사장이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다. 썰물 때면 섬 서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드러나는 사빈이 절경이라 모래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이작도 부아산

가는 길 _ 연안부두에서 하루에 두 차례 배가 다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증편된다. 우리고속훼리(887-2891~5)는 쾌속선을 운행하는데 차는 가지고 갈 수 없다. 대부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대부해운(886-7813~4)을 이용하면 차를 싣고 자월도 · 이작도 · 소이작도 · 승봉도에 갈 수 있다. **숙박 _** 자월도 · 승봉도 · 대이작도에는 최근 시설 좋은 펜션급 민박집들이 많이 생겼다. 승봉도에는 동양콘도(832-1818)가 있다. **문의 _** 자월면사무소(833-6010~1), 자월번영회(833-6033)

큰 노을에 젖는 섬

영흥도는 배를 타는 번잡함 없이 자동차로 갯내음, 바다내음 흠뻑 맡으며 섬 끝자락까지 내달릴 수 있다. 1.3km의 사장교인 영흥대교를 지나면 바로 영흥도 기행이 시작된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서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바닷물에 담그고 섬의 푸르름에 눈의 피로를 씻을 수 있어 좋다. **십리포해수욕장**은 왕모래와 조그만 자갈들이 알맞게 섞여 있으며 300여 그루의 서어나무(소사나무) 군락지가 병풍처럼 해안을 감싸고 있다. 해안의 산지에서만 자란다는 150년 수령의 서어나무가 겨울엔 방풍림, 여름엔 천연어컨의 역할을 해준다. **농어바위해변**은 십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 사이에 보석처럼 숨어있다. 작고 아담한 해안이지만 해수욕과 낚시, 갯놀이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멀티해변이다. 농어가 잘 잡혀 농어바위해변이라 불리지만 그밖에도 우럭, 놀래미 등도 잘 잡힌다. **장경리해수욕장**은 약 1.5km의 백사장을 품고 있는 이 해안을 다시 해송이 둘러싸고 있다. 달의 위력을 증명하듯 밀물과 썰물에 따라 섬이 확실하게 변신하며 놀거리도 따라서 변화한다. 밀물 때에는 해수욕과 일광욕, 모래찜질을 즐기고 썰물때는 갯벌에서 소라, 게 등을 잡으며 갯놀이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넓은 수평선 위로 떨어지는 낙조가 일품이다. 해안선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선녀들도 그 경치에 반해 놀다 갔다는 선재도는 영흥도로 향하는 징검다리 같은 섬이다. 영흥도에서 선재도는 속내가 다 보일 정도로 코앞에 있다. 선재도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당념어해변**이 있지만 물놀이보다는 부드러운 뽕에서 즐기는 갯놀이가 더 매력있다. 바다 래프팅이나 세 바퀴 모터사이클 등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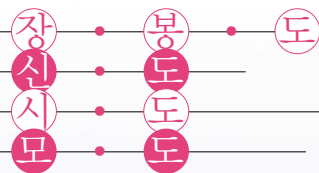
무인도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선재도를 끝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무인도 목도는 모세의 기적을 하루에 한번씩 연출한다. 물이 빠지면 갯벌위에 용단처럼 모랫길이 열려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 선재도 남서쪽 끝에는 또 다른 무인도 측도가 달려있다. 측도 역시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와 자갈길이 이어져 차량으로도 건널 수 있다. 측도에는 물 맑은 **낭하리해변**이 있는데 바지락 줍기로 인기가 더 좋다.



Tip _ 영흥도로 향하는 12.7km의 시화방조제길에서 맛보는 **화통한 드라** 이브는 **섬 여행의 보너스다**. 물놀이와 함께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해발 123m의 국사봉**이 있다. 실향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절**, 통일사에서는 산의 정취에 묻혀 **확 트인 수평선**을 내려다 볼 수 있어 가슴이 후련해진다. **인천상륙작전 기간동안 순국한 해군 영흥지구전투 전사자와 영흥면 대한청년단 방위대원을 기리기 위한 해군영흥전적비가 있다.**

가는 길 _ ㉠가 용을 이용할 때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안산방면으로 진행해 월곡IC에서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를 지나면 선재도와 연결되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영흥도에 닿는다. ㉡스로는 용현동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가는 시외버스(태화상운 883-5111) 또는 광역버스 790번(신백승여행사 영흥터미널 886-4747)을 이용할 수 있다. **숙박 _** 십리포해수욕장 인근에 향토관광마을이 있어 민박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바닷가 주변에 민박집들과 아름다운 펜션들이 즐비하다. **문의 _** 영흥면사무소(886-7800~2)

하늘과 갯벌이 맞닿은 섬



길지도 짧지도 않게 배를 타는 일은 섬을 찾는 즐거움을 두 배로 더 해준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뱃길로 40분이면 닿는 장봉도는 그래서 당일치기 섬 여행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여행객이 던져주는 새우깡에 맛을 들인 갈매기들과 함께 뱃길 여행을 하노라면 어느새 인어상이 맞아주는 장봉도에 도착한다. 장봉도에는 3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웅암해수욕장이다. **웅암해수욕장**은 물이 빠지면 조개나 바지락 등이 지천으로 펼쳐지고 뒤편엔 2~3백년된 노송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서 채 10분도 못가서 왼쪽으로 다시 백사장이 펼쳐진다. 해수욕하기에 적당한 **한들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은 숲 속에 있어 조용하고 한적하다. 넓은 소나무 숲은 여름이면 100여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으로 활용된다. 희고 고운 백사장을 갖춘데다 물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을 풀어놓아도 안심이다.

갯벌 체험을 하기에는 초입에 있는 웅암해수욕장이 좋고, 조용히 쉬기에는 섬 끝자락에 숨어 있는 **진촌해수욕장**이 좋다. 이름은 해수욕장이지만 물이 빠지면 끝 간 데를 알 수 없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갯것잡기에 안성맞춤이고 망둥어 낚시도 할 수 있어 가족단위로 찾기에 적당하다. 저녁이면 수평선너머로 지는 서해의 낙조가 장관을 이룬다.

장봉도는 어촌이라기 보다 농촌에 가깝다. 특히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농체험과 바다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포도농가들이 많다.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신도다. 신·시·모도는 연륙교로 연결된 한 몸 같은 곳이다. 신도에 내려 시도로 건

너지면 **수기해수욕장**이 있다. 길이 400여m의 고운 모래밭은 한달음에 닿을 듯 아담하다. 또한 시도에는 ‘슬픈연가’와 ‘폴하우스’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시도에서 다시 연륙교를 넘어가면 모도 배미꾸미다. 배미꾸미는 배 밑바닥을 가리키는 어부들의 말이다. 모도의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붙여진 재미있는 이름이다. 모도에는 해변 조각공원이 색다른 볼거리다. 조각가 이일호 씨의 작품으로 바다 앞이지만 잔디밭을 만들어 그 위에 30여점의 작품을 설치해 바다의 푸르름과 조화를 이룬다.



시도 수기해수욕장



모도 조각공원

Tip _ 장봉도 북서쪽에 위치한 신도(무인도)는 세계적으로 5백여 마리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랑부리백로 및 팽이갈매기 서식지로 유명하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 무인도인 날가지섬 등에서 낚시를 하거나 바지락을 주울 수 있다. 여름철에는 무인도까지 데려다 주는 배가 수시로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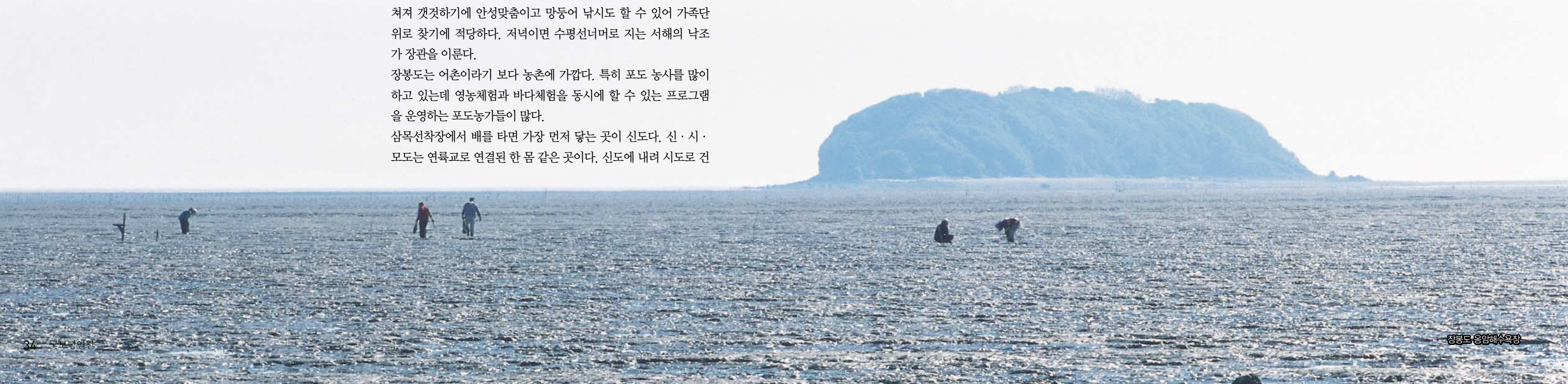


신도 팽이갈매기



장봉도 날가지섬 장승해변

가는 길 _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대교를 건너 첫 번째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삼목 나루터에서 장봉도와 신·시·모도로 가는 배(세종해운 884-4155)를 이용한다. 승용차를 배에 싣고 가는데 운전자 포함해 장봉도까지 요금은 왕복 3만원. **숙박 _** 신·시·모도에는 최근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장봉도에는 어촌체험마을에 있는 민박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_** 북도면사무소(752-4008)



장봉도 웅암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용유도의

한달음에 닿는 앞마당 섬

용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닮았다는 용유도(龍流島)는 예전에 영종도와 연륙교로 이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립되어 서로의 혈맥을 잇고 있다.

영종도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섬 아닌 섬, 용유도 서쪽에는 해변과 해변이 줄줄이 사탕마냥 달콤하게 붙어있다. **마시란·거잠포해변**은 완만한 해변을 따라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맨손으로 놓어, 숭어를 잡을 수 있는 한그물 고기잡이 대회가 매년 열린다. **용유해수욕장**은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아담하게 펼쳐져 있다. **선녀바위해변**에 오면 누구나 무명시인이 된다. 해변의 사색에 빠져보고 싶다면 고즈넉한 이 해변이 적당하다. 적어도 파도

가 쌓였다가 밀려간 만큼의 여백을 사색으로 채울 수 있어 좋다. 가쪽끼리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한적하게 보낼 수 있는 해변이다. 용유도에서 가장 바다향기가 짙은 **을왕리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하다. 야영장,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잘 돼있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 특히 수상보트 등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을왕리에서 고개하나를 사이에 둔 **왕산해수욕장**은 한적한 어촌 냄새가 물씬 풍긴다. 모래사장의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이 함께 피서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춤추는 무희의 옷처럼 아름답다는 무의도(舞衣島)는 해수욕과 산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섬이다. 그런 까닭에 등산복 차림을 한 여행객을 바닷가에서 사철 만날 수 있다. 그뿐인가. 낚시와 조개잡이도 할 수 있고 영화촬영 세트장도 있어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하다.

샘꾸미선착장에서 차량으로 10분정도 가면 **하나개해수욕장**이 나온다. 광활한 모래사장과 그 위에 알록달록한 방갈로가 줄맞춰 늘어서 있어 마치 동남아시아 섬나라의 수상가옥을 연상케 한다. 하나개해수욕장은 가족과 연인들에게는 물론 학교와 회사에서도 인기 만점인 곳이다. 식당,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갯벌체험 등 체력단련 코스가 마련돼 있어 단체 여행이나 수학여행 코스로 알맞기 때문이다.

무의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실미해수욕장**의 또 다른 이름은 큰무리해수욕장. 깨끗한 자연경관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에서 바지락, 동죽, 게 등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물이 빠지면 해변 앞의 실미도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어 무인도 체험을 할 수 있다.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실미해수욕장

Tip _ 용유도 : 용유도 초입에는 장군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는 형상인 장군바위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용유팔경의 하나인 이 장군바위를 수호신으로 여긴다. 또 국민관광지 용유도에서 매년 8월초 해양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8월 4일~6일 동안 열린다.

무의도 : 구름다리로 이어진 **호룡곡산(246m)**과 **국사봉(230m)**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서해의 알프스'라 칭할 만큼 아름답다. 특히 호룡곡산의 '환상의 길'을 택하면 시선을 바다에 두고 두둥실 떠가는 느낌으로 등산할 수 있다. 고래바위, 마당바위, 부처바위 등의 기암절벽의 비경과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나개해수욕장**에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있으며 실미도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실미도'의 촬영무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가는 길 _ 용유도 :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용주해운 762-8880)을 타고 영종선착장에 내려 공항남로에서 을왕리 표지판을 따라 달리면 용유도의 해변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대교를 지나 영종도에 들어서 용유도에 닿을 수 있다. **무의도** :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을 이용해 영종선착장(용주해운 762-8880)에 내린 후 공항남로를 타고 용유방면으로 진행하다보면 잠진도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여기에서 무의행 여객선(무의해운 751-3354~6)을 이용하면 큰무리선착장에 도착한다. 또는 연안부두(우리고속훼리 887-2891~5)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를 갈 수 있는데 차는 실을 수 없다. **숙박문의** _ 용유동사무소 (760-7991) / 무의동사무소(752-3444), 하나개해수욕장변영회(751-8866), 실미해수욕장변영회(752-4466)

천년 바람 타고 역사기행하는 섬



동막해수욕장

여름 한철에만 강화를 찾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물놀이와 더불어 자연을 즐기고 역사탐방을 하는데 강화만큼 제격인 곳도 흔치 않다. 섬이지만 두개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 어느때건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섬아닌 섬의 또다른 매력이다. 강화 북부부터 여행하려면 강화대교를, 강화도 남부부터 돌아 보려면 초지대교를 건너는 것이 편리하다.

초지대교를 건너 남쪽으로 향하면 곧 만나게 되는 **동막해수욕장**은 물이 들어왔을 땐 평범한 바다지만 물이 빠지면 언제 바다가 있었느냐 싶게 눈앞에서 감쪽같이 바다가 사라지고 갯벌이 나타난다. 동막을 비롯한 **강화 남단의 갯벌**은 세계 4대 갯벌의 하나로 손꼽힌다.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얇은 파도를 따라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갯벌이 나타나면 갯갯 하기에 더없이 좋겠지만 갯벌은 동죽과 갯지렁이 등 갯벌 생물체들에겐 절박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갯벌을 사랑한다면 갯벌에서 진흙을 묻히기 보다는 갯벌센터를 찾는 편이 제대로 갯벌을 즐기는 방법이다.



갯벌센터

동막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만나게 되는 **갯벌센터**(933-5057)는 갯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갯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갯벌의 기초부터 갯벌의 먹이사슬과 갯벌 생물들까지 갯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동막해변과 멀지않은 곳에 자리 잡은 **함허동천**은 시범야영장이 마련돼 있어 단체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니산 자락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난데다 취사장, 놀이시설, 다목적광장, 넓은 주차장 등이 있어 야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강화는 물놀이도 재미있지만 역사탐방을 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강화읍내에는 **고려궁지**, **용흥궁**, **강화산성**, **강화유수부 동헌**과 **이방청**, **성공회 강화성당** 등의 유적지가 있다. 강화읍내에서 벗어나 강화대교로 향하면 다리 조금 못 미쳐 **강화역사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강화 역사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생활상까지 체계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역사관을 나와 바다 쪽으로 몇 발짝 내디디면 **갯곶돈대**가 나온다. 강화는 고려 강도(江都)시절에 이곳에서 몽고와 격전을 치렀다. 갯곶돈대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신미양요때 최후의 격전을 벌였던 **광성보**, 병인양요 · 신미양요때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던 **덕진진**, 병인양요 · 신미양요 등을 치르고 일본군함 운양호 침공 등에 맞섰던 **초지진**을 차례로 만난다. 이곳을 둘러보면 고려, 조선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나는 듯 하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분오리돈대**를 만나게된다. 조선시대 쌓은 이 돈대는 초지진의 외곽포대로 동 · 서 · 남벽이 바다에 면하는 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환상적이다. 포구에서는 싱싱한 해산물도 싼 값에 구할 수 있다.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는 **장화리 버드러지 마을**을 꼽을 수 있다. 해님이 감상 '포인트'가 많기로 유명한 강화도에서도 특히 장화리 버드러지 마을은 안면도 · 변산반도와 더불어 서해안 3대 낙조로 꼽힐 정도로 멋진 전망을 자랑한다.



장화리

강화를 찾는 또 다른 매력은 강화도 앞에 점점이 떠있는 여러 섬들을 찾는 일이다. 그 중 ‘대표섬’ 격은 **석모도**.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닿는 석모도에서는 우선 보문사를 가 볼 일이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보리암,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사 홍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이라 불자들이 많이 찾는다. 대웅전 왼쪽으로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나한상을 모신 석굴사원이 있고 425개의 계단을 올라 닿게 되는 눈썹바위 마애석불에서 보이는 바다와 일몰 또한 환상적이다.

사찰 구경을 마치고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 민머루해수욕장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해변이 아담하고 아늑하다.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머드팩을 해도 좋고 게나 조개를 잡으며 갯것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적당하다. 민머루해수욕장은 장승업의 생애를 그린 영화 취화선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넓은 갯벌이 여백의미를 살린 이 영화의 멋을 더해 주었다. 또 고개 하나 너머에 있는 **장구너머**에서도 물놀이와 함께 바다감상을 할 수 있다. 석모도는 낚시터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하리낚시터는 영화 시월애의 무대가 됐던 곳이고 어류정낚시터, 항포저수지 등에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낚는 이들을 사철 만날 수 있다.

불음도 역시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뱃길

로 1시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군인들의 검문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해도 그 덕분에 오히려 섬 전체가 한가하고 여유롭다.

조갯골해변은 송림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바다다. 물이 빠지면 길이 1.2km의 해안이 끝없이 펼쳐진 듯 하다. 모래사장은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향 아이들이 뛰놀아도 안심이다. 마을 안쪽에는 조용하기 그지없는 **영동해변**이 있다. 또한 800년 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4호)와 불음저수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 은행나무 아래 앉으면 여름 더위는 얼씬도 못할 정도로 시원하다.

불음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주문도**는 관광객 발길이 뜸해 고즈넉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문도 곳곳에는 길쭉한 해안을 앞에 두고 뒤로는 소나무숲이 펼쳐진 **대빈창해수욕장**이나 곱고 단단한 모래가 펼쳐진 **뒷장술·앞장술해수욕장** 등 특이한 이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주문도 앞에 떠있는 **돌섬**은 물이 빠지면 건너 갈 수 있는 섬 속의 섬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섬 주위가 모두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바위틈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들어 돌도 없는 낚시 포인트가 된다. 물이 빠지면 바닥에서 게와 소라를 잡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아차도는 이름난 해수욕장은 없지만 섬 뒤편의 **꽃치해안**에서 서해 최고의 머드팩을 즐길 수 있다.

역사의 섬 **교동도**는 북녘땅이 지척인 섬이다. 서북단 망향대에서 북쪽을 보면 연백평야가 손에 잡힐 듯 하다. 연안까지의 거리가 불과 3.5km에 지나지 않아 옛날에는 나룻배를 타고 장을 봐오던 곳이다. 그래서 섬 북단의 망향대는 연백이나 개풍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멀리서나마 고향 땅을 볼 수 있어 아쉬움을 달래준다.

교동도는 역사의 섬이다. 고려의 안향이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공자의 상을 가져와 **교동향교**를 처음으로 세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이 유배돼 죽음을 맞이한 곳도 교동도이다.

최초의 공자의 상이 모셔진 교동향교, 연산군 유배지, 화개산봉수대와 화개산성지, 삼도수군통어영지 등 역사 유적이 즐비해 등을 역사탐방을 하기에 제격이다.

섬 안에 있는 **고구저수지**는 이곳이 예전에 고구려의 읍이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담수능력이 28만평에 이르는 이곳은 사철 내내 붐어가 잘 잡히는 낚시터로 유명하고 최근에 만든 난정저수지 역시 낚시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Tip _ 강화는 답장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처럼 민족의 얼이 서린 참성단에서부터 전등사, 정수사, 강화 고인돌, 고려궁지, 마니산 등의 유적을 둘러볼만하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한모금의 약수를 찾아보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 강화산성 북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깊은 산속 웅달샘처럼 숨어 있는 오음약수터를 만날 수 있고, 이 미 지명으로 자리잡은 찬우물약수터 역시 시원한 물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한적한 휴식을 원한다면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 백련사, 적석사, 선원사 등 강화에 있는 사찰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산사 찾집에서 맛보는 색다른 차 맛은 여름 무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기는 방법이다.



정수사



강화부근리지석묘



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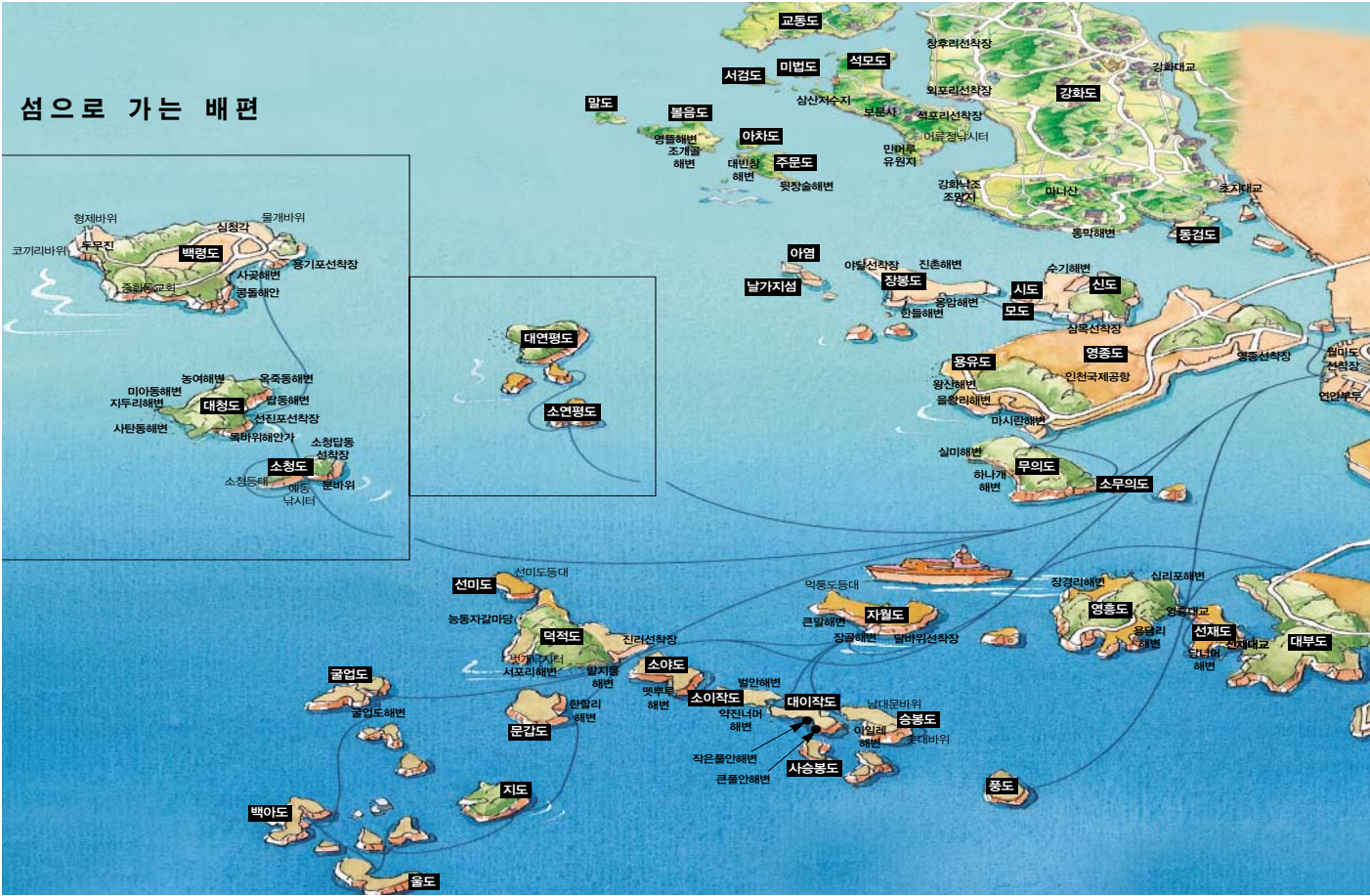
선원사 부근 들꽃 찾집

가는 길 _ 인천 시내에서 700번이나 701번을 이용해 쉽게 강화에 갈 수 있다. 강화를 터미널에서 외포리나 창후리로 가는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석모도·불음도·주문도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삼보해운(932-6007)을 이용하고, 교동도는 창후리 선착장에서 화개해운(933-3212)을 이용한다. **숙박문의** _ 동막해변 화도면사무소(937-1001~3), 석모도 삼산면사무소(932-3001), 주문도·불음도 서도면사무소(932-7004), 교동도 교동면사무소(932-5001~3)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

굿인cheon 굿뉴스



항로	타는곳	선명	선사	출항시간 인천→섬	출항시간 섬→인천	성인편도요금 (단위 원)
신·시·모도 장봉도	영종도 삼목선착장	세종3호	세종해운 884-4155	07:00~19:00 1시간 간격	07:00~19:00 1시간 간격	신도 1,500 / 10,000(승용차) 장봉 2,300 / 15,000(승용차)
대연평도 소연평도	연안부두	실버스타	진도운수 888-9600	09:00	09:00	소연평 25,400 / 대연평 26,800 / 69,000(승용차)
백령도 대청도·소청도	연안부두	씨플레인·프린세스	우리고속 887-2891	09:30	12:00	소연평 35,700 / 대연평 37,500
		마린브릿지	진도운수 888-9600	07:10	12:10	백령 49,500 / 대청 47,000 / 소청 44,500
		데모크라시5호	온바다 884-8700	08:00	13:00	백령 49,500 / 대청 47,000 / 소청 44,500
덕적도	연안부두	프린세스	우리고속 887-2891	09:30	16:10	18,600
		아일랜드	진도운수 888-9600	08:45 / 14:15	09:55 / 15:25	18,600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대부고속훼리	대부해운 886-7813~4	09:30	16:00	7,500 / 45,000(승용차)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연안부두	파라다이스	우리고속 887-2891	09:30	이작 16:15 승봉 16:00 자월 16:30	이작·승봉 18,500 자월 17,000
		골든진도	진도운수 888-9600	08:30	이작 10:40 승봉 11:10 자월 11:45	이작 12,100 / 40,000(승용차) 승봉 13,200 / 40,000(승용차) 자월 11,000 / 38,000(승용차)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대부고속훼리	대부해운 886-7813~4	09:30	승봉 16:00 이작 16:30 자월 16:30	승봉·이작 8,000 / 36,000(승용차) 자월 6,500 / 36,000(승용차)
석모도	강화 외포리	삼보해운 932-6007		07:00~20:30 매정시·30분 출발		800 / 7,000(승용차)
교동도	강화 창후리	화개해운 933-3212		07:30~19:00 30~40분 간격 출발		1,500 / 14,000(승용차)
주문도·볼음도 아차도	강화 외포리	삼보해운 932-6007		09:00 16:00	07:00 14:00	볼음 5,300 / 25,000(승용차) 주문 6,000 / 25,000(승용차)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에는 배편이 증편돼 운항시간이 달라집니다. 이용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천모습, 미 전역에 방송

지난달 취재차 방한한 미국의 공영방송 PBS(Public Broadcasting System) 제작진은 우리시를 방문해 안상수 시장을 인터뷰하는 등 인천의 발전상을 상세히 취재했다. P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여기는 미국(This is America)’의 프로그램 진행자인 테니스 헐리와 담당 PD 등으로 구성된 제작진은 송도국제도시,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 자유공원의 맥아더장군 동상 그리고 인천항고 등을 취재했다. 이에 앞서 취재팀은 개성공단 취재와 국내 주요 경제인, 정부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쳤으며 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관련 뉴스를 묶은 특별방송을 제작해 미국 전역에 동시 방영할 예정이다. PBS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 전역의 348개 지국을 통해 9,000만명(1주일 기준)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내의 대표적인 방송사이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0-5000

공원으로 푸르게 푸르게

올해 우리시 곳곳에 근린공원이 확충된다. 월미, 백마, 문학, 청량, 연희, 인천대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6곳과 수봉,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등 근린공원 2곳을 확대 조성한다. 근린공원은 우리시가 총 551억원을 들여 생활권 녹지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청소년수련관과 장수천 주변 등 인근 부지 5만4천㎡가 추가로 매입되고 관리사무소도 신축될 예정이다. 수도권해양생

태공원에는 7만3천㎡의 공원부지가 추가되고 전시공간과 영상실 등이 신축된다. 또 지난해까지 전망대와 각종 기반시설이 설치된 월미공원에는 올해 2만㎡의 부지를 늘려 전통정원과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연말까지 시내 공원·녹지 조성률을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끌어올린 38.5%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70

쪽방주민 초청 나눔잔치



인천쪽방상담소는 6월 15일 (사)내일을 여는집 4층에서 쪽방주민 초청 나눔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소방교육, 국악공연, 마술 공연 후 점심식사 대접, 선물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나눔잔치에는 쪽방주민 120여명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쪽방상담소는 쪽방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비롯한 소방교육 및 선물을 나눔으로써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한 웃음과 삶의 활력을 선사했다. 한편 쪽방상담소는 지난달 만석동 쪽방거주

민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_ 인천쪽방상담소 011-9710-6886

민원처리, 문자로 알려드려요

우리시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문자서비스는 민원접수시, 민원처리담당자 지정시, 민원처리 완료시 등 각각 단계별로 3회 통보되며 민원접수시 문자서비스 안내를 원할 경우에만 제공된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시민들의 민원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20

인천 여성상, 평등부부상 선정

우리시는 제3회 인천 여성상과 제7회 평등 부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역, 기관, 단체 등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에게 주는 여성상에는 남녀평등부문에 김소림, 여성 권익증진부문에는 배숙일, 여성 지위향상부문에는 신점성 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부부간에 존중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새로운 가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부에게 주는 평등부부상에는 정환옥, 김은자 부부 외 4쌍이 선정됐다. 수상 대상자들은 오는 7월 5일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게 된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92

유치기원 걷기대회 개최

지난 6월 10일 우리시에서는 2014 아시안게임 유치기원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가 열렸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새마을 지도자, 학생, 시민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 유치 홍보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아시안게임 유치 결의대회를 연 뒤 인천터미널 앞까지 1.5km 구간을 걸으며 유치성공을 다짐했다.

문의 _ 2014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440-2014

각국 대사 통해 우리시를 알린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6월 15일 아시아지역 각국 24명의 대사들을 초청해 우리시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교류협력관계 증진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등 인천 주요지역을 소개하면서 아시안게임 유치 및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15개국 주한 아시아 공관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송도 갯벌타워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둘러봤다. 또 연안부두에서 개최된 환영만찬에 참석해 안상수 시장과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리시와 아시아 각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_ 인천국제교류센터 441-8167

자동차 등록 꾸준히 증가

지난 5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80만8천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 포인트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8만6천245대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 15만2천967대, 승합차 6만4천726대, 이륜차 5만4천746대, 특수차 4천91대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5만8천대로 가장 많고 서구 12만424대, 남구 12만4천498대, 남동구 12만3천440대, 계양구 9만7천716대, 연수구 8만4천321대, 중구 4만525대, 동구 2만3천743대, 강화군 2만3천129대, 옹진군 5천679대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34

고가차도 밑,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

시내 곳곳의 고가차도 밑이 내년 말까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우리시는 시내 28개 고가차도 중 공간여유가 있는 21곳의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운전자 휴식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순까지 고가차도 아래의 노점상, 불법주정차 차량을 정비하고 9월말까지 창고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지대형태에 따라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철역 주변의 고가차도 밑은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80

서비스도 효율성도 으뜸 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ATRS)가 주관하는 '2006 공항 효율성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2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으며 이 재회 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항공교통분야의 연구원과 대학교수·정책전문가·항공사 및 공항 관계자 등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세계항공교통학회는 전 세계 120개 공항의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해 아시아·태평양, 북미, 유럽 등 3개 권역별로 최고의 공항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인천공항은 올해 3월 세계 공항 고객만족도 조사(AETRA)에서 공항 서비스 최우수상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 세계항공교통학회로부터 공항효율성 대상까지 수상해 공항서비스는 물론 운영 효율성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문의 _ 인천국제공항공사 1577-2600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인천지역 재래시장에서 현금대신 쓸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이 7월부터 발행된다.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천원권, 1만원권 두 종류의 공동상품권을 25억원 규모로 발행해 유통시킬 계획이다. 각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30여개 시장이 참여할 계획이며 공동 상품권이 발행되면 재래시장 이용확대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0

강화에 실버타운 조성

강화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노인마을이 들어선다. 우리시는 강화군내에 16만6천5백㎡의 부지를 확보해 주거, 의료, 여가기능 등을 고루 갖춘 수도권 최대의 노인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찜질방 등을 마련해 무료 또는 실비시설로 하고, 노인주택과 노인전문병원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유료시설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시험사업으로 노인마을에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200가구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8~12평 규모의 노인주택과 의료 및 여가시설, 재가복지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상주인구 1천500명, 하루 이용인원 1천700명 이상의 노인마을은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방식과 개발방향을 확정해 2010년에 준공하게 된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3

테마박물관 4곳 개관

7월부터 12월까지 선사시대 유물과 전통 생활풍속을 보여주는 4개의 박물관이 차례로 문을 연다. 7월에 개관할 중구 중앙동 2가의 근대생활사박물관에서는 개항기 건축물 모형과 자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다. 부평구 삼산1지구 근린공원에 건립 중인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부평의 역사와 전통놀이, 세시풍속, 농경의례를 엿볼 수 있으며 오는 11월에 개관한다. 12월에 개관하는 서구 원당동의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유물과 주거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같은 달에 개관

하는 구암공예박물관은 인천 지역 토속 공예품, 도자기, 민속용구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0

이민사박물관 착공

한인 이민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지난달 착공됐다. 우리시는 총 115억원을 들여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 어촌체험지구에 한국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해 2008년 2월 개관할 계획이다. 박물관에는 시대별 이민사와 미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해외 한인사회의 성장에 대한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된다. 또 이민기록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과 이민 관련 도서, 논문 등을 비치한 자료실도 들어선다. 우리시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하와이 이민이 인천항에서 처음 출발한 역사성을 살리고 월미공원과 함께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0

교육청 소식

3개 학군으로 세분화

인천지역 일반계 고교 학군이 현행 2개에서 3개군으로 세분화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15일 학교군 조정 협의회를 통해 일반계 고교 학군을 남부(1학교군)와 북부(2학교군), 서부(3학교군) 등 3개 학교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도심지역 학생수 감소와 구도심-신도심 간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학교군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북부권의 2학교군은 부평·계양(2학교군)과 서구(3학교군)로 분리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시민공청회를 거쳐 마무리 되는대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인천관광공사소식



최우수 관광진흥상 수상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 19회 한국국제관광전(KOTFA 2006)에서 우리시 홍보관이 최우수 관광진흥상을 수상했다.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에 따르면 총 60개국, 350개 도시와 관광관련기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인천홍보관이 디자인은 물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 모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관광진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시 홍보관은 미래로 뻗어가는 첨단도시인 점에 착안하여 기하학적인 원통구조의 홍보관을 설치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관광 1번가 지정

인천관광공사는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하철 시청역과 남구 문학동 인천도호부청사를 잇는 3.8km 구간을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거리인 '관광 1번가'로 지정했다. 관광 1번가로 지정된 거리는 도호부청사와 향교 등의 전통 유산과 관공서, 쇼핑센터, 금융기관, 문학경기장 등 현대적 시설물이 어우러져 있어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관광공사는 관광 1번가에 태극기 상시게양, 아시아 주간(Asian's Week) 등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리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0-5000

인천대교, 교각상판 공사 시작



인천대교 착공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6일 주탑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에 첫 상판을 올려놓는 상량식이 열렸다. 지난해 6월 이후 해상에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교각상판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총 연장 12.3k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긴 사장교가 될 이 다리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해상고속도로로 연결하며 200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제 2, 제3 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며 서울 남부 및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통행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가 완공되면 국내 토목기술의 향상은 물론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서해상의 관광 명물로 자리할 것이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착공

지난 6월 14일 송도국제도시 내 인하대 산학협력관 부지에서 인천자동차부품기술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총망라한 기술연구 개발센터는 총 85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7,326㎡ 규모로 내년 3월말 완공된다. 인하대와 (재)송도테크노파크는 센터건립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을 집적화하고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라지구 개발 시작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7월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1단계 지역은 국제업무시설용지 약 24만3천 ㎡공동주택용지 약 6만6천6백 ㎡일반상업용지 약 3만2천3백 ㎡등의 국제업무타운과 골프빌리지 200가구를 포함한 테마파크형 골프장 153만1천8백 ㎡등 모두 189만8천1백 ㎡규모이다. 총 792만5천4백 ㎡규모의 청라지구는 2010년부터 1단계 지역의 공동주택지 7천600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하며 2010년까지 9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관광, 레저, 금융도시로 조성된다.

영종도에 중국어 마을 조성

중구 영종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중국어 마을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운북지구에 2008년까지 중국어 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6만6천4백 ㎡의 부지에 연면적 3만3천3백 ㎡규모의 건물을 지어 하루 숙박기준으로 300~5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중국어 마을은 어학교육시설 뿐만아니라 전시, 체험, 생활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종합시설을 갖추고 생활 속의 중국어권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병원 설립시 세제혜택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법인세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이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첫 외국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에 맞춰 외국병원 허가기준, 외국 의사 인정기준 등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송도에서 LED 생산한다



일본 동북(東北)프레스의 국내 합작법인 (주)산일테크가 송도 지식단지 내에 제조공장과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은 (주)산일테크와 11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동북(東北)프레스는 일본 내 최고의 정밀 프레스기술을 확보하고 휴대폰 발광다이오드(LED) 제조기술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송도 단지 내에 7천860㎡ 규모의 제조공장을 세워 IT정밀금형제작, LED관련제품 및 플라스틱 사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0% 수입에 의존해 왔던 휴대폰 LED가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이병화 중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울목동
	노경수 중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허 식 동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정종섭 동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박창규 남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도화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김성숙 남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이근학 남구 제3선거구(한나라당) 송의1동, 송의2동, 송의3동, 송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4동
	김을태 남구 제4선거구(한나라당)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이재호 연수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김용재 연수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신영은 남동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최병덕 남동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강석봉 남동구 제3선거구(한나라당)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오홍철 남동구 제4선거구(한나라당)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강문기 부평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고진섭 부평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강창규 부평구 제3선거구(한나라당)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개3동
	최종귀 부평구 제4선거구(한나라당)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이은석 계양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효성1동, 효성2동
	조남휘 계양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한도섭 계양구 제3선거구(한나라당)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성용기 계양구 제4선거구(한나라당)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문희출 서구 제1선거구(한나라당)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김용근 서구 제2선거구(한나라당)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윤지상 서구 제3선거구(한나라당)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박승희 서구 제4선거구(한나라당)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유천호 강화군 제1선거구(한나라당)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박희경 강화군 제2선거구(한나라당)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배영민 옹진군 제1선거구(한나라당)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이상철 옹진군 제2선거구(한나라당)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이명숙
	비례대표 한나라당 김소림
	비례대표 한나라당 지정구

연미복을 벗는 온화한 클라리넷 아저씨, 한학 악단장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비록 운동장 스탠드에서였지만 해양경찰관현악단의 그 멋진 연주 장면을 처음 본 것은 두어 달 전인, 지난 4월 29 일이었다. 모 문화재단이 매년 그때쯤이면 개최하는 전국학생·어머니백일장 자리에 불려나가 그 연주를 듣게 된 것이다. 이 악단은 백일장 행사 시작 전에 몇 곡의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을 연주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면서, 또 개회 의식이 거행될 때 애국가와 목념 반주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나와 준 것이었다. 거기서 악단장 한 학(韓鶴) 경위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이다. 참, 운동장 스탠드라고 한 것은 이 백일장이 워낙 참가 규모가 커서 매년 문학운동장 축구장을 빌려 쓰기 때문이다.

그날 어찌어찌 악단 옆쪽이면서 본부석으로는 뒤편에 앉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지휘자를 바라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휘를 하던 한 단장과는 적잖은 상거(相距)가 있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못 엄숙하게, 때로는 쾌활하고 가볍게, 또는 익살맞게, 흥겹게, 그리고 거세어졌다가는 다시 잔잔하게 팔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상체를 젖혔다 기울였다 하면서 60인조 관현악단 지휘에 빠져 있었다. 행사 개막을 기다리며 그의 손짓, 몸짓이 아주 우아하고 또 재치 있어 보여서 내심 감탄과 함께 선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예술을 해도 저런 멋들어진, 독자든, 청중이든, 관객이든,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때의 인상이라면 지휘하는 사람이 계급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나이 또한 지긋한 분이라는 느낌이었다. 멀찍이 흰색 예모(禮帽) 아래 누른 금테 안경을 낀 모습이 특히 그런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언제 저분을 한번 만나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내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기회를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단장이 올해 말이면 정년 퇴직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한 단장이 옷을 벗기 전에!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 면담 신청을 했고, 그것이 성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송도 신도시. 해양경찰청은 아직은 허허벌판이라고 할 그곳에 언제 들어왔는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 경위가 단장으로 있는 관현악단은 마치 무슨 비밀 부서나 되는 것처럼 그 하얀 건물 지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단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건물 2층에 있는 정책홍보담당관실에 올라가, 늘씬한 키에 음대에서 타악을 전공했다는 음악 경찰 1호, 미녀 여경 이수윤(李受潤) 경장을 만나야 하고, 그녀의 안내로 홍보담당관을 만나야 했다. 악단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이었다. 홍보를 담당하는 곳 이니까 음악도 미술도 불가분 필요할 것이다. 차를 마시고 독도 수비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작가와 이쪽은 한 학 단장을 만나러 지하로 내려간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흔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풋풋한 맛이 없다고들 말한다. 유명한 음악인들의 얼굴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은 턱 선이 아래로 빠른 인상들이 많다. 즐겁고 경쾌한 이미지라기보다는 다소 우울하고 사색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보인다. 한 단장도 신경질적인 사람일까.

컴퓨터가 한 대, 책상 하나, 응접 소파 한 세트. 그리고 벽에 붙여 놓은 월간 음악 연주 스케줄 표뿐인 한 단장의 집무실은 서너 평 남짓했고 아주 단출했다. 더구나 평생 근무복 차림의 한 단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백일장 당시 먼발치에서 본 바로는 그의 나이와 계급은 일추 맞았다고 하겠으나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음악인들의 용모, 품성, 어디에서도 그런 선입견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다. 솔직히 그의 모습 어디에도 악단 지휘자의 엄숙함이라든가 비상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았다. 수수하고 평범했다. 더구나 사람의 심성을 얼마든지 해집어놓을 수 있는 매력의 악기, 클라리넷을 부는 세련된 연주자라는 느낌도 없었다. 그저 마음 너그러운 이웃집 아저씨, 혹은 세상 물정에 그다지 밝지 못한 늑늑한 외삼촌 같은 인상, 어쩌면 또 수박밭 원두막에 앉아서 기웃,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농부 아저씨. 손수 내놓는 무슨 비타 음료를 마시며, 더욱 그렇게 풍기는 사람 냄새를 맡는다.

“맞아요. 금년이 정년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갔군요.”

어느새 58세. 계급 경위. 근무 기간 31년, 해양경찰 경력만은 20년째.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직책으로 해양경찰청 악단장. 그리고 또 끝내 닥쳐온 정년 퇴직. 이런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감회(感懷)라는 말일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 가지는 인간의 감정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다. 한 단장의 순박한 표정 속에 언뜻 그런 느낌이 떠올랐다 사라진다. 그는 이제 눈부시게 흰 제복 소매와 견장, 모자 차양에 놓인 금색 수(繡)실의 화사함도, 흰 구두의 유쾌한 멋도 모두 뒤로 해야 할 순간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 단장의 감회를 그의 이마에 가늘게 패이기 시작하는 주름살 속에서 다시 읽는다.

그의 경찰 인생이라면 전적으로 음악과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에서 중학 1학년 때, 학교 밴드부인



취주악부에 입회하면서 그 인연이 비롯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클라리넷이 마음에 들어 그걸 열정적으로 불면서 그는 단국대 부속고등학교에 스카우트되었다. 단대부고를 졸업하고는 곧장 해군 군악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악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찍었다. 호구지책과 기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직장. 한 단장의 머리 속에 떠오른 적합한 직장이 곧 서울시경찰국이었다. 그곳에는 악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단원 모집에 무난히 합격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경찰, 즉 육경(陸警)에 투신했지만 업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간 남대문서에서 근무했다. 그렇게 순수 경찰 이력도 쌓다가 1987년 해경으로 옮긴 것이다. 지휘 공부는 전문대 통신 강의를 들으며 했다.

"경찰 관현악단으로는 용인경찰대학 다음으로 우리 해양경찰관현악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악단이 생김으로써 음악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지요."

관현악단은 젊은이들이 국가 방위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의 전공인 음악을 손에서 놓지 않게, 그래서 2년여 간 손이 굳어버리는 손실을 막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악을 통해 각가지 의식에 참여하고, 사회 봉사에도 적극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 그는 그런 관현악단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해경관현악단의 연주실 규모나 시설이 결코 흔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인다. 특히 연주실을 처음 만들 때 한 단장은 자신은 1년밖에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최고의 시설로 지어야 한다고 조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년 퇴임 준비라고 뭐 있나요? 공로 연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 보고…. 아니면 뭐, 음악학원 같은 거? 동료들도 여럿 악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다들 좋아했거든요. 음, 퇴임 기념 연주회도 한번 하고 싶고, 백령도 같은 도서지방 방문해서 음악회 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할 일이 많아요.”

턱시도를 벗고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멋진 지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어도, 그러나 그는 마음씨 좋은 음악 아저씨로 우리 곁에, 우리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쪽 노을은 그것이 한없이 부러워서 언제 그와 소주라도 나누며, 이렇게 황혼이 와도 악기를 만질 수는 있는 것인지, 슬며시 물어 보고 싶다는 평계를 만드는 것이다.

눈물겨운 딸의 특별한 생일



3월이 생일인 우리 딸에게 6월에 특별한 생일이 또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흘렀네요. 93년 6월 어느 날 새벽, 중학교 등교준비를 하던 딸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딸은 하루아침에 뇌출혈이란 병명에 생사를 넘나들며 1%의 기적을 걸고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었죠. 의사들조차 포기했었던 상황에 각서까지 쓰며 매 달려야 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 오랜 시간의 수술은 기적처럼 대성공이었죠. 심한 출혈 탓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때, 정말로 절망적이었던 그때 기억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이네요. 딸은 사춘기시절 갑작스레 닥친 병마에 좌측마비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6월 그날 아침만 되면 새로이 태어난 딸을 축하해주고자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그 힘든 고통과 아픔을 깨끗하게 이겨내고 당차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네요.

송영해 (부평구 일신동)

아버지의 목소리

가끔 하늘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비친다. 그리곤 이내 눈시울이 적셔진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27년 전 일인 셈이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지만 생일에 대한 기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어머니가 시루떡인 백설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 밥 먹었니? 생일 축하한다!!!!” “네 먹었어요. 아버지는 드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응. 회사란다. 좀 늦을 것 같다. 있다 보자.”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고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5분이 채 안되어서 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술이 약간 취한 듯한 모습에 목소리의 톤은 다른 날과 달랐다. 늦으신다던 아버지는 집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셨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생일 축하한다며 하얀 봉투를 내미셨다. 내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생일선물이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벤트였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니 눈물이 나온다. 평소에 엄하시고 말씀도 없으셨던 아버지였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하늘을 가끔 바라보시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아버지. 너무도 나약해지신 아버지께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다.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모습이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난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 카메라에 담는 습관이 생긴것 같다. 지금도

난 그때의 그 생일 추억하나로 지금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생일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인용 (남구 관교동)

사진 속의 아버지

몇 해 전만 해도 이른 아침이면 아버지께서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목소리까지도 잊혀진지 오래다. 아버지께서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다. 워낙 꼼꼼하고 자상해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해두셨다가 일일이 연락해주시고 가끔 기쁨을 전해주는 한통의 편지도 보내주신 그런 아버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이라고는 평생 가본 적이 없으시고 건강은 자신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위암 말기라니... 믿기지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살아계시기만 바랬다. 그런 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이별은 나의 곁에 맴돌다 들꽃이 만발하고 코스모스가 실바람에 산들거리는 10월. 가장 예쁜한 둘째딸의 생일날 다시는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신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면서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지갑 속에 꽂아둔 작은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 봅니다.

김미영 (남구 주안2동)

자기야,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

지난 5월29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전날 뭘 갖고 싶냐고 하기에 남편이 돈이 없는 걸 아는 저는 그냥 미역국을 끓여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운동을 매일하는 저는 다음날도 5시30분쯤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운동을 나갈까 하다가 어젯밤에 남편한테 한 말도 있고 해서 그냥 운동을 나갔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잠곡밥을 해놓고 아침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 주려고 옆에 가니 오지도 못하게 하고서는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국에 간장을 넣으려고 간장병을 여는 순간 부엌바닥에 간장병을 쏟아서 온 집안이 간장냄새로 가득찼지요. 얼마 후에 미역국이 다 되어 밥을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끓여준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자기 생일 때는 내가 미역국 맛있게 끓여줄게.”

저희 남편이 끓여준 생일 미역국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미역국 끓여 주세요.

송경자 (남동구 만수동)



엄마의 생일

어제 그러니까 6월3일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일을 하셔서 집에 매일 계시지 않거든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엄마가 물으셨을 때 전 토요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누구 태어난 날인데~~ 모르겠어?” 라고 엄마가 말씀하시자마자 전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저의 하나뿐인 엄마의 생신이었던거죠. 엄마의 외동딸인 제가 생신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힘들게 키워주신 보람도 없으셨을 거예요. 말씀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얼마 전부터 새로 시작한 일에 바빴다는 핑계는 정말 핑계인거죠. 떨어져있어서 더욱 잘 해드려야 하는데... 내년 생일엔 제가 정말 잘 해드릴게요. 미역국도 직접 끓이고, 손잡고 영화도 보고, 엄마 님은 장미꽃도 드리고, 예쁜 선물도 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혜란 (부평구 부평2동)

복잡한 8월의 생일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이면 우린 시댁에서 한꺼번에 밀린 생일 파티를 하느라 분주하다. 8월이 시작되면 월초에 어머님생신, 며칠뒤 남편의 생일, 그 하루 뒤 내 생일, 3일이 지나면 시누이 생일, 그리고 2일이 지나면 손아래 동서의 생일이 된다. 축하해야할 생일이 여러 번이다보니 아예 한꺼번에 합동으로 묶어서 생일파티를 한다. 이산가족으로 이북에 고향을 두신 시부모님께서는 제목이야 어쨌든 언제나 가족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그분위기를 너무도 좋아하신다. 더운 여름 태어난 본인보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생각은 잠깐뿐 그냥 즐겁게 모여 하루를 보내는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같은 달에 생일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남남끼리 만난 우리부부의 생일이 하루차이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웬지 남다른 인연이 아니었던가 하는 억지추한의 이유이기도 하다. 정말 말씀 없으시고 무뎌뚫하신 우리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일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

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패심하기도 한 일이지만 정말 기억하셨다 용돈이라도 한 푼 주실 때는 더욱더 훌륭해 보이는 우리 아버님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후 늦게는 아버지 고향의 솜승대로 냉면을 먹으려 간다. 국수가닥처럼 오래 오래 건강하라는 생각으로 면으로 된 음식을 먹는다. 올 여름에도 얼마 남지 않은 그날에 식구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거창한 선물도 분위기 있는 생일파티도 별로 부럽지 않은 하루다. 박현주 (남구 용현5동)

이렇게 하는 생일 축하 방법도 괜찮죠?

우리 큰 언니가 올해 생일은 아주 특별하게 기억될 거라고 얼마 전 통화에서 자랑(?)을 하네요. 조카는 직장생활을 집 근처에서 하는데 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답니다. 언니 생일이 올 때는 5월 말경이었는데, 글썽 조카가 점심 시간을 반납하고, 아니 양해를 구하고 쏜살같이 달려와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케이크를 사놓고 갔는지 뭐예요? 카드에는 원래는 미역국도 끓일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엔 꼭 끓여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존경한다고, 항상 건강하시라면서요. 저녁에 퇴근한 언니는 관리사무소에서 꽃바구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꽃바구니도 언니 이름으로 와 있었다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꽃바구니는 형부의 모임에서 보낸 것이었고, 케이크와 말끔한 집안 분위기는 조카가 엄마를 위해 낸 1시간의 배려와 지혜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네요. 언니는 “값비싼 선물보다도 가족간에 나누는 배려와 정이 고마울 뿐”이라며, “내가 자식농사는 실패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네요. 저도 조카가 지혜롭게 행동한 건 인정해야겠다는 생각과 어느새 어엿한 어른이 된 조카가 대견하네요. 마음이 예쁜 조카를 두어서 행복했습니다.

임승미 (중구 덕교동)



2014 Asian Games INCHEON Candidate City

2014 아시안게임은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에서

외가에서 치른 철부지 생일잔치



돌아가신 어머니는 제사나 생일을 무척 까다롭게 챙기셨다. 제삿날은 목욕부터 시작해 정성 드려 제수를 준비하셨고 생일날에는 미역국은 물론 갖가지 음식에 인절미까지 마련해 축하해 주셨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나는 생일은 특별한 날로 알고 지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슬하를 떠나 외숙댁에서 생일을 맞았다. 아침상은 미역국도 떡도 없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보통의 상차림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참고 참다가 드디어 성질이 폭발했다. “외삼촌,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세요?”하면서 냅다 큰 소리를 쳤다. 깜짝 놀라시는 외숙께 볼멘 소리로 오늘이 내 생일인데 미역국도 떡도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느냐고 대들었다. 외삼촌은 깜짝 놀라시며 미안한 표정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외숙모께 조카 아이 생일도 모르냐며 별명대로 기차 화통같은 큰소리로 호통을 치셨다. 저녁상에는 미역국에 잘 차린 음식으로 식구들이 때 늦게 생일을 축하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그리 속 없고 철모르는 짓을 했는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나는 지금껏 착고하신 외숙 내외분의 지극한 조카 사랑을 잊지 않고 지내면서 내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송두홍 (서울시 동작구)

생일잔치의 후유증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야기입니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생일잔치에 시큰둥하던 아이가 4학년 생일에는 자기도 잔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은근히 친구가 없냐하며 걱정하던 터라 더위도 잊고 정성을 다해 집에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염려와는 달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아 좋았

는데, 어느덧 놀이도 지쳐갈 즈음 활짝 열린 현관문 옆에 암전히 있는 축구공을 기분이 상기돼 있는 생일 주인공이 후다닥 달려가서 찬다는 것이 그만 문 옆 모서리를 찰바람에 발가락뼈에 금이 가고 말았답니다.

더운 여름, 무릎까지 김스를 한 무거운 다리로 목발에 끼어 겨드랑이가 아프다고 하면 등에 걸쳐 업고 3층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올라치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답니다. 반가이 찾아 온 여름방학. 온 식구가 심부름꾼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어찌나 건강한지 번쩍 안기조차 힘이 들 정도로 묵직한 아들 이면서도 마음속엔 든든한 아들이랍니다.

황순미 (부평구 산곡2동)

생일

아버이로부터 생명을 받은 날 귀하고 즐거운 날!	시대의 흐름은 번거로운 외식문화 화려한 요리 속에 자손들의 은혜의 보답을...
벚짐에 쇠고기 묶어서 “계집아이 생일이라오” 손에 들고 오셨던 부친은 하늘나라에서도 내려다보시겠지!	오로지 그리운 것은 부친의 손에 벚짐 묶인 쇠고기 그 때 그 시절에 부친의 사랑이 그리워서
창 밖에 내리는 동짓달 비는 서글프구나 인생이 끝자락인 생일을... 허무한 인생살이 고달파서	생일은 누구나 즐거운 날 함께 나누며 축배의 잔을 즐거운 세상을 내가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 떠나리!
	김하주 (연수구 선학동)

국선도 단전호흡 무료회원 모집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선도단전호흡 무료회원을 모집합니다. 국선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신체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

며 활발한 두뇌회전과 집중력, 기억력 강화로 가정과 직장에서 활기찬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련입니다.

- 모집기간 : 7월중 선착순
- 모집인원 : 50명 예정 (오전 25명, 오후 25명)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이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련장소 : 인천시청 본관 국선도수련장
- 수련시간 : 오전 10시 30분~11시 40분, 오후 2시~3시 10분 1일 2회
- 수강료 : 무료 (단, 수련에 필요한 복장은 참가자 본인 부담)

문의 및 접수 _ 인천여성단체협의회
(865-8354, <http://inwomen.or.kr> 공지사항 참조)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 기간 및 장소 : 7월 10일(월)~13일(목)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 (가정의학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간염검진
- 검진인원 : 100명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시 의료원 가정의학과 (580-6141),
시 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유교경전 무료 강의

인천 향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중 무료로 경전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전통 유교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사회윤리를 바로 잡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경전과목 : 맹자·소학
- 일시
 - 소학 : 매주 화·목 오전 11시~12시
 - 맹자 : 매주 수·금 오전 11시~12시
- 장소 : 인천향교회관 (남구 학익동 677-1) 4층 강의실
- 강사 : 學山 강정원 선생
- 찾아오는 길 : 좌석 111번, 일반 4·13번, 마을버스 515·518·520
신동아아파트 1차 정문앞 맞은편 하차

문의 _ 인천향교회관 (876-7041, www.ichyanggyo.or.kr)

아파트 홈페이지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아이티줌 홈페이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인천 전역의 아파트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아파트홈페이지가 없는 지역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3군데씩 독립형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작해드립니다.

- 신청자격 : 아파트 입주민신청 (50명), 부녀회 임원 및 부녀회회장, 아파트 동대표 임원 및 회장, 관리사무소 소장
- 세대수 : 3백 세대 이상
- 도메인 : 1년 무료 제공 (COM)
- 웹호스팅 : 무료
- 유지관리 보수 : 무료
- 샘플보기 : 인천 삼산신성미소지움 아파트 www.ap448.com,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www.ap974.com, 아이티줌 홈페이지 솔루션 센터 www.itzoom.co.kr

문의 _ 02-2601-9311 담당 기획 신현기 (010-2264-3334)

나는야 챔피언! 카트라이더 스피드 대회 열립니다

- 일시 : 7월 15일(토) 오후 2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내용 : 토너먼트 방식으로 스피드 경기 진행
- 대상 : 동구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선착순 30명)
- 접수 : 6월 25일(일)~7월 8일(토)까지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 (761-1318)

파티기획 워크샵열립니다

파티플래너를 초청한 강연과 파티기획 실습후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파티기획 워크샵이 열립니다.

- 일시 : 8월 5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영상다목적홀
- 참가자격 : 파티플래너를 꿈꾸거나 파티기획을 해보고 싶은 중·고 청소년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6월 27일~7월 11일까지 15명 선착순 마감)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 (761-1318)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합니다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과정 : 윈도우, 한글2002,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그래픽, 홈페이지, 자격증 등
- 교육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교육장소 :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별관(남구 송의동)

문의 _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887-8500)

다음달 글의 테마는 ‘휴대폰’

다음달 테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7월 18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인천근대문화유산 방문교육 신청하세요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이사장 박성문)는 문화재청 후원으로 인천근대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근대문화유산 방문교육은 인천지역 초(3~6학년)·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나

라 근대문화의 산실인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2006년 2학기 방문교육은 해반문화사랑회 홈페이지에서 예약 받고 있으며, 인천근대문화유산지킴이 방문교사들이 찾아가 각 학교에 설치된 디지털 영상기기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의의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기초교육 활성화
 - 학교교육에서 가장 열악한 '향토사'와 '근대유산'에 대한 접근 기회 마련
 - 초·중등학교의 눈높이에 맞는 근대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
 - 민간·자치조직에서 운영하는 '근대문화유산지킴이'와 '문화관 광해설사'의 활용을 통한 교사들의 부담 감소
- 교육목표
 - 배우기 쉽고, 흐름을 이해하는 근대문화유산 교육
 - 방문교육을 통한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민간단위 문화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한 문화유산 전달자(Messenger)의 다양성 확보
 - 초등학교 향토사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현장성 확보
 - 방문교육을 통해 문화유산 현장연계교육의 기회 확대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의 날 기념행사 열립니다

2006년 제11회 여성주간(매년 7월1일~7일)을 맞아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행 사 명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2006 여성의제토론회	7월 4일(화) 오후 2시~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성평등 관점에서 본 복지정책의 과제
기념식 및 부대행사	7월 5일(수) 오후 1시 30분~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식전공연(여성단체), 기념식 및 유공자(여성상, 평등부부상) 표창 식후공연(뉴에이지그룹 비온뒤&금마루)
	7월 5일(수) 오전 11시~오후 5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아름다운 가게 운영, 여성단체 활동 홍보 및 캠페인
여성주간공연	7월 6일(목) 오후 7시~8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바쁘다 바빠
	7월 6일(목) 오전 11시·오후 2시, 여성리광장 공연장	말괄량이 소녀
	7월 7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93)

- 교육기간 : 9월 1일(금)~12월 20일(수) (공휴일 제외)
- 교육신청방법
 - 사전예약 : 홈페이지(http://www.haeban.org)를 통한 학급·단위별 사전예약 (6월 20일(화)부터 접수)
 - 방문교육 : 초·중학교 학급·특별활동단위 방문(각급 학교 보유 디지털영상기기 활용)
 - 교육대상 : 초(3~6학년)·중학교 학생·교사
 - 교육내용 : 인천 근대문화유산
 - 교육방식 : 1개 주제 수업 (40분 수업)
 - ※1개 학교에서 2개반 이상 신청시 각기 다른(또는 중복) 주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활용기법 : 파워포인트 기법 (주제별 내용을 CD에 수록)
- 참조 : 1학기 방문교육 실시학교 (만수초, 명현초, 천마초, 가좌초, 도림초, 부흥초, 서화초, 검단초, 한길초, 진산초,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단체 및 공공기관)

문의 _ 해반문화사랑회
(761-0555, 담당 백영임 haeban@haeban.org)

인터넷으로 여는 미술세계



미술세계(대표 김태억)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미술세계(www.misulsegye.com)'에서는 국내외 유명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며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회 일정 등 미술계의 각종 소식을 전달해 미술 애호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세계는 캐나다, 유럽 작가들과 교류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_ 이메일 ktu20@yahoo.co.kr

인천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 모집인원 : 〇〇명
- 수업연한 : 1년(2학기), 매주1회(수요일 오후 6시 30분~9시 40분)
- 지원자격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관리자, 비영리 단체의 임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본인사진(반명함판) 1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7월 3일(월)~8월 4일(금)
- 합격자 발표 : 8월 14일(월) 개별통보

문의 및 연락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FAX 770~8501)

여성! 중년의 위기탈출 세미나 열립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여성이 건강해야 지역사회와 나라가 건강합니다. 특히 중년여성의 건강은 바로나라의 건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폭력으로 권리와 권익을 빼앗기며 고통으로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2006 인천광역시 여권신장 프로젝트 '여성! 중년의 위기탈출' 세미나를 엽니다.

- 강의 내용
 - 1강 : 풍성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 2강 : 건전한 자아상
 - 3강 : 부부간의 의사소통
 - 4강 : 남녀의 차이와 역할
 - 5강 : 나는 누구인가 (TA교류분석)
 - 6강 : 생명의 언어
 - 7강 : 성숙한 결혼생활에서의 갈등해결
 - 8강 :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 9강 : 가정과 효
 - 10강 : 행복한 가정의 실제

- 일시 및 장소
 - 7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동구청 지하대회의실
 - 7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부평구청 7층 대강당
 - 7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중구청 한중문화관
 - 9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남동구청 2층 대강당
 - 9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계야구청 6층대강당

-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금)·21일(금) 오후 7시 강화군청 회의실

문의 _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441-0176)

인천 웨딩박람회 열립니다

제3회 인천 웨딩박람회가 인천웨딩협회 주최로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열립니다.

- 일정 : 7월 8일(토)~9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
- 장소 : 롯데백화점 인천점 8층 샤롯데홀 (무료주차)
- 전시내용 : 드레스, 스튜디오, 한복, 허니문, 예물, 가전, 가구, 웨딩홀, 폐백음식, 혼수품목 일체
- 추첨에 의한 경품 Event : 허니문상품권, 신부한복, 커플링, 백화점상품권, 최고급드레스 대여권, 폐백음식, 스튜디오 촬영권

문의 _ 인천웨딩협회 (433-4456 www.incheonwed.co.kr)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실시

2006년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량 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끝번호 승용차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경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우리는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 할인하여 드리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은 우리시 홈페이지(www. incheon.go.kr)를 통해 7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교부하는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고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56)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게, 장 받으시게나

오늘도 할아버지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장마철 흐르는 땀을 씻을 곳으로 이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누군가 의자 밑에 있던 장기관을 내놓자
금세 차, 포, 마, 상이 뛰어다니고 줄도 부지런히 다닙니다.
슬슬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꾼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훈수 들다 면박을 받아도 기어이 한수 거듭니다.
그들의 장기관에서는 '일수불퇴(一手不退)'라는 비정함은 없습니다.
“어허, 이사람”하며 못이기는 체 한 수 물러 줍니다.
할아버지들은 이미 양보의 미덕을 알 만큼 많은 세월을 보낸 탓입니다.
“외통일세, 빅장이구먼”
체스, 보드게임 등 서양식 놀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들으면
통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외치며 그들은 그렇게 한여름을 보냅니다.
(용현동 철길 건너목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생일케익도 **떡**
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뵙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